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정 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살관련 여성우울증세의
젠더 불평등 원인에 관한 연구

-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한 지 희

자살관련 여성우울증세의
젠더 불평등 원인에 관한 연구

-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

한 정 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한 지 희

인 준 서

한지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김은실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김영택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한정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우울증세가 실제 자살과 연결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자살 관련 20대 여성우울증세의 젠더 불평등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의 20대 여성 자살률은 증가 추세이다. 한국이 유독 20대 여성의 자살 비율이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4명인데 반해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1.1명으로 2배를 넘어서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대 남녀 자살자를 살펴보면 여성 자살자의 비율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많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와 헝가리 정도이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20대 여성 자살자는 남성 자살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해마다 20대 여성의 우울증세와 그로 인한 자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관련 우울증세는 '심신이 미약하고 유약하며 의존적이고 감상적인 성향 탓'에 생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으로 그저 개인 스스로 풀어내야 할 가벼운 혼란 정도로 치부되어왔다. 여성의 우울증세와 그로인한 자살사고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면서 해당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살관련 우울증세의 원인에 관한 여성학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극심한 우울증세로 인해 자살을 생각했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20대 고학력 여성 1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20대 여성들의 자살관련 우울증세의 젠더 불평등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자살관련 여성우울증세의 젠더 불평등 원인에 관한 연구’의 목적과 그 필요성을 밝히며 본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II 장에서는 우울증세와 실제 자살의 상관성 및 20대 여성의 자살관련 우울증세를 살펴보고, 우울증세와 자살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우울증세 및 자살 현황을 분석하며 자살관련 우울증세의 젠더적 분석을 시도했다.

III 장에서는 자살관련 여성우울증세의 젠더 불평등 원인을 제시하기 위해 여성 개인이 아닌 가부장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전체 집단의 사회적 위치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이론적 논의들(가부장제, 성역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빈곤의 여성화)을 고찰한다.

IV 장에서는 II, III 장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 10명의 심층 인터뷰를 분석한다. 노동시장 안에서의 여성과 가부장적으로 고착된 가족 안에서의 여성, 몸 숭배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그리고 사랑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시대 20대 여성들의 우울증세에 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했다.

V 장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가부장적인 부모, 빈곤의 여성화, 성적자기결정권의 박탈, 외모 지상주의 등 형태만 달리 했을 뿐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요소들은 이 시대의 20대 여성들을 우울감에 빠지게 만든다. 이러한 20대 여성들의 우울증세는 역으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동시에 젠더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여성의 저항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성을 생애주기별로 우울하게 만드는 동일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된 여성의 우울증세는 여성 개개인에게는 분명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 개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보면 결국 근본 원인은 일상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공적 가부장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전통적인 여성상과 규범으로 강요되는 여성의 성역할은 우리 시대의 여성들을 우울증세에 시달리게 만든다. 20대 여성들의 자살관련 우울증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학적인 치료나 개개인의 정신적 안정이 아닌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급증하는 20대 여성의 자살률과 우울증세를 예방하기 위해 실행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자살관련 예방 시스템의 구축, 미디어의 노력,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련 연구의 시행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성의 우울증세와 자살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20대 고학력 여성의 자살관련 우울증세 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차이(연령대, 학력, 직업군 등)를 지닌 여성들을 중심으로 심화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 2.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 5 |
| II. 자살관련 우울증세의 젠더분석 | 12 |
| 1. 우울증세에 대한 전반적 이해 | 12 |
| 1) 우울증세의 정의 | 12 |
| 2) 우리나라의 우울증세 현황 | 16 |
| 3) 여성우울증세의 이해와 고찰 | 17 |
| 2. 자살에 대한 전반적 이해 | 20 |
| 1) 자살개념의 이해 | 20 |
| 2)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 | 22 |
| 3)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견해 | 27 |
| 4) 자살생각 | 29 |
| 5) 여성 자살의 특이성 | 31 |
| III.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 | 33 |
| 1. 젠더 불평등과 가부장제 | 34 |
| 2. 고정된 성역할 | 40 |

| | |
|-------------------------------|-----------|
| 3.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 43 |
| 4. 빈곤의 여성화 | 47 |
| IV.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 50 |
| 1. 노동과 여성 | 51 |
| 1) 취업 문제 | 52 |
| 2) 임금 격차 | 57 |
| 2. 가족 안에서의 여성 | 60 |
| 1) 가족과 결혼 | 60 |
| 2) 가사노동 문제 | 63 |
| 3) 일상화된 가정폭력 | 67 |
| 4) 묵인되는 남편의 외도 | 70 |
| 3. 몸이 지배하는 사회와 여성 | 72 |
| 4. 사랑 속에서 길을 잃는 여성 | 77 |
| 1) 길들여지고 종속되는 연애 | 77 |
| 2) ‘성’에 대한 이중 잣대 | 80 |
| V. 결론 | 83 |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 | |
|-------------------------------------|----|
| <표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 11 |
| <표2> 우울증 진단표(DSM-IV) | 15 |
| <표3> 최근 5년간 여성 우울증 환자 현황 | 19 |
| <표4>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 | 23 |
| <표5> 사망률 추이 | 24 |
| <표6> 연령대별 사망 원인 순위 | 25 |
| <표7> 사고사에 의한 사망률 | 26 |
| <표8> 연도별 20대 여성 자살자 수와 자살 사망률 | 26 |
| <표9> 연도별 여성 자살통계 | 31 |
| <표10> 여성취업 장애요인 | 57 |
| <표11> 가족 유형의 구성 | 60 |
| <표12> 맞벌이 부부의 요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 65 |
| <표13> 외모 지상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 76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우울증세가 실제 자살과 연결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자살과 관련한 20대 여성우울증세의 젠더 불평등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08년 한국자살예방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 주최한 '우울증과 자살' 심포지엄에 참석한 300여명의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간호사들은 수년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울증세를 지목했다.¹⁾

또한 서울시 위기상담전화의 최근 3년 간 자살상담을 살펴보면 우울증세를 호소한 비율이 전체 상담의 절반을 훨씬 넘는 71%로 나타난다.²⁾ 자살시도 고위험 군으로 분류되는 자살사고 경험률(죽고 싶다는 생각을 경험한 자)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히 20세~29세의 연령에서 약 10%의 차이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사고 경험률이 높다.³⁾ 또한 현대인의 우울증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무려 2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인다.⁴⁾ 이는 '최대 10%는 자살한다.'는 우울증세에 여성이

1) 한국자살예방협회(2008), 「우울증과 자살」 심포지엄 보도자료.

2) 우울증세 이외 알코올, 정신분열 및 망상 등의 순이다. 그러나 알코올을 비롯한 정신적인 문제 역시 우울증세의 요인으로 작용되거나 결과물인 경우가 많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이 또한 우울증세로 볼 수 있다.

3) 김영택(2009),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젠더리뷰』, p83.

4) 서울시민 1,042만 1,782명 중 27만 966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남성이 9만 8,318명인데 비해 여성은 17만 3,155명으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의 세계적인 동향은 남녀비율 1대 0.5이다. 우리나라의 비율도 이와 비슷하다. 2008년 자살자 1만 2270명 중 남성은 7931명이고 여성은 4339명으로 남성의 55%였다. 여성 자살자가 숫자상으로 가장 많은 60대 이상에서도 여성은 1404명으로 2625명인 남성의 54%였다. 자살자가 가장 적은 50대 여성 자살자는 남성의 2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대 자살자는 남녀비율에서 다른 연령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증가 추세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체 자살률은 줄었지만 '여성 자살률만', 그것도 '20대 여성 자살률만' 늘어났다. 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자살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자살자는 모두 1만 22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1만 3407명에 비교해 봤을 때 1100여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며 2005년 이후 30대~40대와 60대 이상 노년층 자살이 줄어든 덕분이다. 그에 반해 여성 자살자가 급증한 20대 자살자는 1574명으로 2007년 1550명에 비해 2.3% 늘어났다. 지난해 자살한 20대 중 여성은 802명, 남성은 772명이었다. 20대 남성 자살자는 전년 대비 24명 줄었고, 여성은 48명 늘었다. 20대 여성 자살자만 따지면 전년보다 6.4%가 늘어난 것이다.⁵⁾ 젊은 여성의 자살을 가족 외부에 잘 알리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성향과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수치는 그 이상일 것이다.

한국이 유독 20대 여성의 자살 비율이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4명인데 반해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1.1명으로 2배를 넘어서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

5) 통계청(2009), 2004~2008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

다.6) 특히 20대 남녀 자살자를 살펴보면 여성 자살자의 비율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많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와 헝가리 정도이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20대 여성 자살자는 남성 자살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7)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우울증세와 자살은 사회적 문제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전 연령대에 손쉽게 노출되는 미디어에서는 남자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죽음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이유로, 여자인 어머니의 죽음은 보통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비극으로 다루며 성역할을 고착화시킨다. 젠더화된 사회적 구조에서 언제나 아버지는 공적 영역에, 어머니는 사적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20대 여성의 우울증세와 그로 인한 자살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관련 우울증세는 '심신이 미약하고 유약하며 의존적이고 감상적인 성향 탓'에 생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으로 그저 개인 스스로 풀어내야 할 가벼운 혼란 정도로 치부되며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면서 해당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노인 여성의 우울증세 및 자살에 관한 연구나 우울증세 완화를 위한 미술, 음악과 같은 예능 관련 치료제안 정도는 있었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살관련 우울증세의 원인에 관한 여성학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잇따른 여성 연예인들의 우울증세로 인한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단순히 개인적인 범주에서 머물렀던 여성의 우울증세에 관해 사

6) 「허울뿐인 상위, 수치스런 하위. 각종 지표로 본 KOREA」, 『주간조선』 2009년 2061호.

7) OECD(2007), Health data.

회적 담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꽤 많은 숫자의 젊은 여성 연예인들의 그간 숨겨왔던 우울증세와 그로 인한 자살충동 등이 기사화되면서 여기에 힘입어 단순히 '여성 연예인'의 고충이 아닌 '젊은(20대) 여성'의 우울증세와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작게나마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진행된 본 연구는 시기적절함에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첫째로 여성의 자살관련 우울증세에 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 시기에 좀 더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그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우울증세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닌 가부장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는 전체 집단의 일반적인 경험이다. 남성과는 다른 생애 주기적 경험과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우울증세는 개별적인 사안 사안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개인적이지만, 그 개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보면 결국 근본 원인은 개인의 일상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공적·사회적 가부장제⁸⁾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20대 여성의 우울증세와 자살률의 감소를 위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8) 공적 가부장제는 한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아버지의 지배(사적 가부장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들의 점한 우월한 지위 아래 여성들이 종속적인 상태에 놓인 체계를 말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성찰⁹⁾에서 출발했다.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와 현재 대학원까지 모든 학창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연구자는 어린 시절부터 보편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에서의 '여자답지 않은(혹은 여자답지 못한)¹⁰⁾' 길을 걸어왔다. 친구들 모두가 외모에 민감해지던 사춘기 시절에도 연구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연애보다는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고 연설대회에 나가 상을 타오는 것을 즐겼던 이른바 톱보이¹¹⁾였다. 이러한 성향은 대학에 들어와서도 장애인 관련 운동과 인권 관련 NGO활동으로 변모되어 펼쳐졌고 학부를 마치고 난 후에는 여성학과에 진학하여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모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직접적으로 접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과는 달리, 연구자는 이른바 '사랑' 앞에서 종종 나약해지고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는 했다. 능동적으로 내 사랑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맴도는 모습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변모하여 상대방의 사랑을 얻어내고는 흡족해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정한 내가 아닌 '보편적인 시각에서 만족스러운 나'를 만들어야만 하는 현실에 의문을 가졌고, 본의 아니게 실제의 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와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에 만족해하는 모습은 스스로를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

9) 연구자 본인이 경험한 삶을 두고 고민하며 성찰하는 것. 여성학 연구에 있어 연구자 본인의 자기성찰은 연구의 근간이다.

10) 같은 대외적 활동을 해도 남성은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여성은 소위 '나댄다.'는 말로 일축시키곤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1)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여성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을 말한다.

었다. 아무리 무수히 많은 책을 읽고 이론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도 이론과 실제의 거리는 좁아지지 않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 보내며 연구자는 허탈함과 상실감에서 비롯된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아성찰을 근간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우울감은 비단 연구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래의 많은 여성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암묵적인 동의하에 가족이라는 틀 자체를 지배하는 가부장제, 빈곤의 여성화, 남녀 간의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박탈 등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사회적 요인들은 20대 여성들로 하여금 가야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가부장적인 혹은 여성을 생애주기별로 우울하게 만드는 동일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된 같은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즉, 좀 더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심층 인터뷰¹²⁾를 통해 20대 여성들의 경험을 열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아닌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중심의 연구를 하기 위함이다. 기존 연구의 양적 방법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량화된 점수나 연구자가 설계한 문항으로 만들어진 설문지의 결과만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 연구의 한계나 사회에 만연해있는 보편화된 통념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먼저 앞서 언급한 단답형

12) 심층인터뷰는 보통 심층면접이라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 in-depth interview를 뜻한다. 심층인터뷰는 주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성주의 방법에서 매우 효과적인 연구 방법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방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젠더의 차이나 권력의 문제를 개인의 내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의 질문들로 이루어진 설문지로는 효과적인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구자 본인을 비롯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이미 사회적 편견과 통념에 길들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문지의 질문과 답변 또한 그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0대 여성들의 자살관련 우울증세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수 십, 수백 가지 이상의 요인들이 결집해서 나타나는데 이를 간단한 설문지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20대 여성의 모집단을 구성하여 설문을 하고 그 분석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자살경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양적 방법보다 좀 더 효과적이라 연구 방법이라 판단되는 질적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10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의 연령대는 20대이며 전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대졸 혹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고학력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극심한 우울증세로 인해 자살을 생각했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정신과적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우울증세로 인한 정신과 상담과 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본인 스스로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우울증세는 정신적인 부분인 만큼 그 증세의 경중을 연구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우울증세에 관한 사건이나 경중을 본 연구에서 논하지 않았다. 대신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풀어내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이 사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세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 문제 때문에 우울증세에 시달려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김윤경의 우울증세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취업 문제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 할수록 외모에 대한 부담감과 연속적인 취업 실패로 인한 빈곤 등이 그녀를 더욱더 우울의 함정에 빠져들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각적인 편의를 위해 첨부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표1 참조)에서는 이들의 우울증세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만을 적었으나 후에 인터뷰 분석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터넷을 통한 구인은 쉽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사례금만을 보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진정성¹³⁾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확실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로 혹 연구 진행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되어 중도에 그만두었다. 후에 극심한 우울증세를 앓았던 지인의 동료를 소개 받아 그분의 소개로 다른 연구 참여자들까지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라는 상투적이고 딱딱한 관계가 아닌, 같은 고민을 안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언니 혹은 동생의 관계로 만나며 자매애¹⁴⁾를 쌓아갔다.

지인을 통한 연구 참여자 섭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구 참여자가 반드시 20대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연령대는 가장 중요한 구인의 요소가 되었다. 20대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세분화시키지는 않은 이유는 20대라는 연령 전체의 자살관련 우울증세를 파악하고자 함이었고, 사실상 20대 초

13) 인터넷을 통한 구인은 손쉽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실제로 우울증세로 인한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였다.

14) 여성학에서의 자매애는 단순히 여성들의 모임이나 우애를 넘어선 개념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자매애가 형제애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Daly는 남성들의 형제애나 전우애는 그 안에서 개개인의 정체성을 잃지만 여성들의 자매애는 개인적인 역사들의 여성미학적으로 접합된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벨룩스를 비롯한 여러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자매애라는 표현으로는 여성 안에서 수많은 차이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연대'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반, 중반, 후반이라는 세분화가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연구자 개인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 이유는 연구자 본인과 연구 참여자들의 보다 쉬운 접근성을 위함이었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잦은 만남이 요구되는 바, 보다 원활한 만남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을 섭외하게 되었다.

대개 소규모로 진행되는 질적 방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이렇듯 개인적으로 공개화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주제로 한 경우에 지인을 통하여 점조직처럼 참여자를 넓혀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한에서 신뢰를 근간으로 한 인터뷰가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 목적 및 의의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심층 인터뷰의 사용처와 이 연구로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연구 참여자들 역시 본 연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긍정적인 태도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인터뷰 내용 기록 방법은 녹음기기 사용과 필기를 병행하였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이 있었다. 연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안은 보통 이메일과 메신저 및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였다.

인터뷰는 보통 다과나 간단한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불편하고 딱딱한 분위기에서의 형식적인 인터뷰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었다. 한 사람의 소개로 만났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안면은 있는 관계였으므로 보통 시간에 맞춰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간 중간 이따금 연구 참여자들은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나 보통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연구자 대 연구 참여자라는 형식적인 관계 보다는 각자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풀어놓는 기분으로 우리는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열정을 쏟았다.

<표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¹⁵⁾

| 사례 | 이름 | 직업 | 학력 | 나이 | 우울증세의 원인 |
|----|-----|------|---------|----|-------------|
| 1 | 김윤경 | 구직 | 대졸 | 28 | 취업 문제 |
| 2 | 이혜란 | 대학생 | 대학 재학중 | 24 | 아버지의 외도, 폭력 |
| 3 | 박지은 | 회사원 | 대졸 | 26 | 외모 스트레스 |
| 4 | 최영백 | 대학생 | 대학 재학중 | 23 | 남자친구와의 관계 |
| 5 | 이성희 | 대학원생 | 대학원 재학중 | 29 | 비혼으로 사는 것 |
| 6 | 유해미 | 가정주부 | 대졸 | 29 | 주부 우울증 |
| 7 | 한수연 | 대학생 | 대학 재학중 | 28 | 빈곤 |
| 8 | 백영지 | 휴학생 | 대학 휴학중 | 25 | 미혼모로 사는 것 |
| 9 | 김지연 | 회사원 | 대졸 | 28 | 회사 내 차별 |
| 10 | 강미희 | 대학생 | 대학 재학중 | 22 | 성폭력 피해자 |

15)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실명이 아닌 가명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 바란다.

II. 자살관련 우울증세의 젠더분석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 자살 이유의 80%는 우울증세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 특히 유명 여배우들의 잇따른 우울증세로 인한 자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각종 미디어를 통한 우울증세로 인한 자살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우울증세는 단순히 그 증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살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울증세와 자살 행동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의 자살 위험률은 일반인보다 41배가 높다.

1. 우울증세에 대한 전반적 이해

1) 우울증세의 정의

우울증세는 단편적 증세가 아닌 매우 복잡다단한 복합적 증세이다. 우울이란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deprivere'라는 동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내리 누름', '밑으로 가라앉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명사형으로 우울증세의 뜻은 '일반적인 정서의 낙담과 철수의 상태'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볼 때 우울증세는 절망감, 의기저하 혹은 낮은 자존감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16) 통계청(2009), 2004-2008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

우울증세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에서 주요 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 두 가지로 정의된다. 주요 우울장애는 조증, 호재성, 또는 경조증 삽화의 과거력 없이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증 삽화가 있어야 한다. 기분부전장애의 필수 증상은 적어도 2년 동안 우울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고, 하루 대부분 지속되는 만성적인 우울한 상태이다. 기분부전장애만을 가지고 있던 개인들 가운데 약 10%가 매년 첫 번째 주요 우울증 삽화를 앓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주요 우울증 삽화의 필수 증상은 적어도 1주 동안의 우울 기분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이 상실되는 것이다. 식욕, 체중, 수면, 정신 운동 활동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변화와 자살 생각 혹은 자살 시도 등 최소한 4개 이상의 증상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울증세는 깊은 슬픔과 염려,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및 자학과 죄책감, 남들과 동떨어졌다는 사회적 위축, 불면증, 식욕 및 성욕의 상실, 또는 일상사에 대한 즐거움이나 행복 기쁨 등의 긍정적 감정의 상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어도 현대인들은 때때로 불안을 느끼거나 삶의 가운데서 슬픔 혹은 이와 비슷한 감정상의 문제를 겪는다. 이런 모든 것이 우울증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우울증세의 증상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황, 발작, 물질남용, 성기능부진, 혼란 및 환각 등으로 발현될 수 있다. 또한 수면장애, 불안감의 과도한 증가, 집중력 저하, 사고추리능력 상실에 따른 정신적인 둔화현상 등이 있으며, 보통 다른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의 41배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우울증

세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 Beck(1979)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사고 내용에서 전반적이고 부정적인 인지적 오류를 보이며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고,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하며,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기대를 가지는 인지적 삼제¹⁷⁾로 인해 긍정적인 정보를 차단하고, 중성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더욱 부정적으로 자각한다. Rehm(1977) 또한 부정적인 자기탐지, 지나치게 높은 기준 설정, 부정적인 자기평가, 불충분한 자기강화, 과도한 자기처벌 등이 우울증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Beck과 Rehm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 비난과 파멸과 같은 것으로 왜곡되게 지각하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되어 자신이 무능하고 열등하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자기비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와 달리 주의집중이 잘 되지 않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고력의 저하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울증세의 유병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생애주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세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세에 취약하고 우울증세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례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2배 정도 높았으며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OECD 가입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한다는 일관된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

우울증세의 진단을 위해 전신건강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진단 기준에

17) 우울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개인의 부적절감으로 돌리고, 긍정적인 사건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사건은 강조하고,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특징을 인지적 삼제라 한다. <곽호완, 『일상심리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05>

의거한다. 보통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 방법은 1994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SM-IV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이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상 가운데 5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연속2주 기간 지속되며 이러한 상태가 이전과 다르게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우울증세를 의심할 수 있다. 우울증세를 지닌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며 다른 증상들 중에서도 다수의 증상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표2> 우울증 진단표 (DSM-IV)

| |
|---|
| (1) 거의 하루 종일 우울증세를 보임. (주관적인 <스스로 슬프거나 공허하다고 느낌>설명이나 객관적인<울 것처럼 보인다, 슬퍼 보인다. 관찰에서 드러난다.) |
| (2) 주관적인 설명이나 타인에 의한 관찰에서 거의 매일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
| (3) 의도적으로 식이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체중감소 또는 체중증가가 나타난다. (예. 1개월에 체중의 5%이상 변화) |
| (4) 거의 매일 불면이나 과다 수면이 나타난다. |
| (5) 거의 매일 정신적 흥분 또는 지체증상이 나타난다. (단순히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멍해진다는 주관적 느낌 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이 가능한 상태.) |
| (6) 거의 매일 피로감을 느끼거나 에너지 상실이 나타난다. |
| (7) 거의 매일 단순한 자기 비난,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낀다. (망상적일 수도 있음) |
| (8) 거의 매일 사고와 집중력의 감소, 결정 곤란을 겪는다. |

(주관적 설명, 또는 타인의 관찰)

(9)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님)을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반복적인 자살사고 또는 시도를 하고, 자살을 자행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2) 우리나라의 우울증세 현황

세계보건기구(WHO)는 우울증세가 2020년이면 인류를 괴롭힐 3대 질병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의 41배라고 한다. 우울증세에 대한 유병률은 조사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울증세와 같은 기분 장애는 유병률이 가장 높은 정신과적 장애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시대나 민족, 사회를 망라하여 나타나는 전 인류적인 질환이고, 이 결과는 전 세계에 걸쳐 상당히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의 약 8%인 약 320만 명이 매년 우울증세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우울증세는 현대인의 역병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과를 방문하는 사람 중 4명 중 1명은 우울증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4년 사이에 47.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과 전덕인교수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5년 동안 한림대 의료원 산하 5개 병원(한림대성심, 강동성심, 한강성심, 강남성심, 춘천성심병원) 정신과 외래 및 입원환자 6만 2232명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세가 14,536명(23.4%)을 차지했으며,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해 2007년(3369명)에는 2003년(2281명) 대비 47.7%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울증세는 남성

(5088명, 35%)보다 여성(9448명, 65%)에서 1.9배 더 많았다.

우울증세는 전 인구의 약 15%가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라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실제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의 수는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울증세를 가진 환자의 15%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고 국내에서도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의 70% 정도가 우울증세를 포함한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증세에 취약하다. 우울증세 발병률은 남성은 5~12%, 여성은 10~25%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가중되어 우울증세에 걸릴 가능성이 1.5배~2.5배 높다. 여성에서 우울증세의 발생빈도가 높은 이유는 기존의 심리학, 의학 연구에서 밝히는 성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여성만이 경험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요소가 남성과는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3) 여성우울증세의 이해와 고찰

여성의 우울증세에 대한 논의는 1963년 Betty Friedan의 『여성의 신비(Feminie Mystique)』라는 책에서 보고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Friedan은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과 더불어 자의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공적사회 진출의 좌절과 아내, 주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주어지는 사회현실과 사적 영역의 무가치로움이 주는 가부장적 논리를 여성 우울증세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여성학적 논의는 우울증세를 생물학적 요인과 같은 의학적인 요소에

서 접근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신분석학에서 여성의 신체를 바탕으로 여성 우울증세를 설명하는 것에도 많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사회 모든 현상에 젠더의 개입이라는 여성학적 시각을 확립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우울증세 또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Saadaoui(1996)는 신경증을 앓고 있는 이집트 여성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경증은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남녀 차별적인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의학에서 프로이드식의 남성중심성은 더욱더 여성 우울증 환자를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여성 우울증 환자가 가진 병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그녀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서 여성 신경증 문제를 제시했는데, 착취행위와 남성 중심적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신경증 장애라는 미묘한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우울증세가 사회에 대한 반항적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도 있다. Bordo(1990)는 근대 지식이 몸에 작동하는 권력의 기제를 살펴보는 푸코의 고고학적 방법론을 빌려 우울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성의 신경질환을 분석하고 있다. Bordo는 19C에 출현한 히스테리, 우울증세, 그리고 20C에 출현한 광장 공포증, 거식증과 같은 여성의 정신질환인 여성병은 일종의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반란 및 반항으로 보고 있다.

Greenspan(1995)은 여성주의 심리 상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우울증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성 특유의 증상은 남성 치료자의 관점이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그녀는 여성 우울증세가 남성 중심세계에서의 여성이기 때문에 겪

을 수밖에 없는 건강치 못한 사회 심리적 상황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보고 있다. 그 증상에는 드러낼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의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한혜율,2004)

<표3> 최근 5년간 여성 우울증 환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 | 진료인원(명) | | |
|------|---------|---------|---------|
| | 계 | 여 | 남 |
| 2003 | 395,457 | 268,085 | 127,372 |
| 2004 | 422,663 | 286,880 | 135,783 |
| 2005 | 459,222 | 312,267 | 146,955 |
| 2006 | 279,095 | 327,482 | 151,613 |
| 2007 | 525,466 | 364,713 | 160,753 |

출처 : 건강보험 우울증 환자 수 및 진료현황(2003~2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부장적인 시각에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은 감정적, 의존적, 세밀함, 나약함, 수동적, 차분함, 조용함 등으로 규정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에게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상과 더불어 새로운 여성상¹⁸⁾이 기대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여성상 역시 남성의 이해에 맞춰진 것이므로 여성들은 오히려 전통적인 여성상만을 받아들일 때 보다 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각각의 성향이 전혀 다른 이중적 여성상을 강요받는 이 시대의 여성들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여성의 이해와는 전혀 반대로 남성의 요구만이

18) 능동적으로 활동하지만 남성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성적으로 개방되기는 하되 길로는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사회적 활동과 더불어 가사 일도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여성상이다.

받아들여지는 가부장적인 사회는 여성들을 우울증세에 빠트리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2. 자살에 대한 전반적 이해

1) 자살개념의 이해

자살을 의미하는 ‘suicide’는 ‘자기’를 의미하는 ‘sui’와 ‘죽이다’라는 caedo(kill)가 그 어원이다.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살이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자살개념은 그 접근 방법에 따라 정신의학적, 사회적, 법적, 종교적, 윤리적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살이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Judith Keller와 Shapiro(1982)는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Durkheim은 자살의 정의를 ‘그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함으로써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행하는 죽음’이라고 정의했다. 자살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혹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자살의 개념은 포괄적이어서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그리고 자살행위(suicide behavior)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자

살 개념은 자살을 고립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 세계에서 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하루 평균 3000명에 달하며 자살을 시도한 20명 중 1명은 미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0일 '자살방지의 날'을 앞두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전 세계 자살률은 60% 증가했고 매년 10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리학적으로는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자살률이 높았지만 자살자 수는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가 가장 높았다.

알렉산드라 플라이쉬만 WHO 전문가는 유럽과 북미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90%로 압도적이었으나, 아시아는 충동적인 결정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플라이쉬만은 자살을 막기 위한 핵심은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 스트레스,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학대 등 자살을 유도하는 초기 단계를 인지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¹⁹⁾

WHO는 자살에 관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행위'라고 하며, 자해행위란 '어느 정도의 자살의도를 가지고 그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한 상해'라고 했다. 사회학자 Emil Durkheim은 '희생자 자신이 일어나게 될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의 사례들에게 적용된다.'고 정의했다.

Shneidman(1964)은 자살을 자기 위해, 자기 의도된 죽음의 인간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살자의 마음을 알기 위해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자살미수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죽기로 결심했으나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Shneidman은 그 연구 결

19)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과를 토대로 자살자들의 심리상태를 분석해보았는데, 자살은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 즉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일 뿐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의식을 단절하려는 행동이며 이들은 절망과 무능력감, 자기 존중감 상실로 인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한 것을 상심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완전무결한 해결, 아니면 자살 이 두 가지의 선택 이외에는 모든 가능성은 생각에서 배제된다. 그러면서도 자살은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양가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즉, 자살하는 순간에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살자들은 80% 이상이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힌트를 준다. 절망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원한 평안을 구하며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 이들이 과거에 비슷한 종류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파악해보면 제한된 심리적 대처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⁰⁾

2)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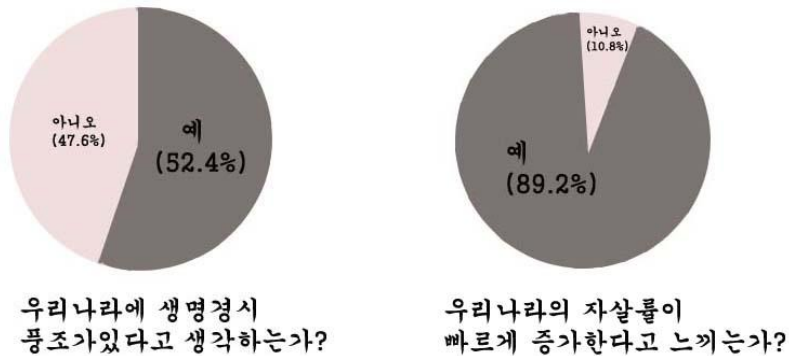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와 견해는 그 사회의 자살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2006년 12월 전국 16개 시·도

20) 조용범 외, 『자살, 예방할 수 있다』, 학지사, 1998.

에 거주하고 있는 15~69세 1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에서 보여지는 우리 국민의 자살관련 태도 결과를 보면 전체 국민의 33.4%가 살면서 한 번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5.6%에 달했다. 단순 자살생각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살 장소나 방법 또는 시간 등 자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본 적이 있는 경우는 3.9%였고, 나아가 자살시도까지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8%에 달했으며 주변의 지인 중에 현재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답변은 9명 중 1명 꼴인 11.6%였고,

<표4>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



출처 :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을 시도하여 자살로 사망을 했거나 혹은 미수에 그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16.7%에 달했다.

또한 절반 이상(52.4%)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생명경시풍조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 89.2%의 국민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OECD 가입국 기준)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과 관련한 개인 경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보다 정확한 우리나라의 자살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청 사망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2004년에는 11,523명이 자살하여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 자살하였고 2005년에는 12,047명이 자살하여 26.1명이 자살하였으며 2006년에는 10,688명이 자살하여 23.0명이 자살했고 2007년에는 12,174명이 자살하여 24.8명이 자살하였다.

<표5> 사망률 추이

(단위 : 인구 10만명당)

| 사망원인 | 사망률 | | | 증감 | |
|------|------|------|------|-------------|-------------|
| | 1997 | 2006 | 2007 | (2007-1997) | (2007-2006) |
| 자살 | 13.0 | 21.8 | 24.8 | 11.7 | 3.0 |

출처 : 통계청(2009),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

남성의 경우 2004년에는 7,903명이 자살하여 인구 10만 명당 34.5명이 자살하였고 2005년에는 8,053명이 자살하여 34.9명이 자살하였으며 2006년에는 7,249명이 자살하여 31.1명, 2007년에는 7,747명이 자살하여 24.8명이 자살하였다. 여성의 경우 2004년에는 3,620명이 자살하여 인구 10만 명당 15.8명이 자살하였고 2005년에는 3,994명이

자살하여 17.3명이 자살하였으며 2006년에는 3,439명이 자살하여 14.8명이, 2007년에는 4,427명이 자살하여 18.1명이 자살하였다.

연령대별로 사망 원인 순위(2007년)를 살펴보면 20대 미만은 운수사고, 20대와 30대는 자살, 40대 이상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

<표6> 연령대별 사망 원인 순위

(단위 : 천명, 인구 십만 명당)

|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 1위 | 운수사고 | 자살 | 자살 | 암 | 암 | 암 |
| 2위 | 자살 | 운수사고 | 암 | 자살 | 뇌혈관 질환 | 뇌혈관 질환 |
| 3위 | 암 | 암 | 운수사고 | 간질환 | 간질환 | 심장질환 |
| 4위 | 익수사고 | 심장질환 | 간질환 | 뇌혈관 질환 | 자살 | 당뇨병 |
| 5위 | 심장질환 | 익수사고 | 심장질환 | 운수사고 | 심장질환 | 간질환 |

출처 : 통계청(2009),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

또한 지난 10년 간 사고사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운수사고, 익수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등은 감소했지만 고의적 자해(자살)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1997년에 사망원인 8위였던 자살은 2007년 4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표7> 사고사에 의한 사망률

(단위 : 천명, 인구 십만 명당)

| | 자살 | 추락사고 | 중독사고 | 익수사고 | 화재사고 | 운수사고 |
|------|--------|-------|------|------|------|------|
| 1997 | 13.1 | 5.2 | 2.3 | 3.6 | 1.7 | 33.3 |
| 2007 | 24.8 | 6.1 | 0.4 | 1.5 | 0.6 | 61.3 |
| 증감 | + 11.7 | + 0.9 | -1.9 | -2.2 | -1.1 | -8.9 |

출처 : 통계청(2009),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

20대 여성의 경우 2004년 413명이 자살하여 인구 10만 명당 21.5명이 자살하였고, 2005년에는 649명이 자살하여 10만 명당 34.6명이 자살하였으며, 2006년에는 456명이, 2007년에는 754명이 자살하여 인구 10만 명당 18.1명이 자살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8> 연도별 20대 여성 자살자 수와 자살 사망률

(단위 : 명)

| | 2004 | 2005 | 2006 | 2007 |
|-----------|------|------|------|------|
| 20세 - 29세 | 413 | 649 | 456 | 754 |

출처 : 통계청(2009),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

3)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견해

사회학자 Emil Durkheim(1897)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유형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Durkheim은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매우 개인적으로 보이는 자살과 같은 행위가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자살에 대한 연구는 Durkheim 이전에도 있었지만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은 그가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Durkheim은 프랑스에서 집계된 자살의 공식적 기록을 조사하여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여성보다 남성이, 가톨릭신자보다 개신교도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결혼할 사람보다 미혼인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자살률이 전쟁 시에는 낮아지고 경제적 변화나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에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Durkheim은 개인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압력이 개인의 자살률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는 자살을 크게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로 구분하였다.

이기주의적 자살은 사회의 통합정도가 낮고 개인이 속한 집단의 결속이 약하거나 깨져서 고립되어 있을 때 많이 나타난다. 가톨릭신자들의 자살률이 낮은 이유는 이들이 강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이에 비해 신 앞에 홀로 선 개인적, 도덕적 자유를 중시하는 개신교도들은 그에 비해 자살률이 높다. 전쟁기간에 자살률이 낮은 것은 그 기간 중에 사회적인 통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과도하게 사회에 통합되어 사회적 결속이 너무 강하고 사회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클 때에 일어난다. 이런 경우

자살은 위대한 선을 위한 희생이 된다. 일본의 카미가제 비행사들이나 이슬람의 자살폭탄테러는 이타적 자살의 예이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규제가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난다. 아노미는 사람들이 급속한 변화와 사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존의 규범을 따르지 않게 되는 사회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고정불변의 기준이 없어지는 경제적 격변의 시기나 이혼과 같은 개인적 투쟁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람들이 속한 환경과 그들이 원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숙명론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될 때 이러한 자살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개인에 대한 억압은 운명 혹은 사회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 안의 자살률은 시대에 따라 일정한 유형을 띄고 있다. Durkheim은 이것이 자살률에 대한 영향을 주는 일관된 사회적 압력의 증거라고 보았다. 그의 자살률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적 유형들이 어떻게 개인의 행위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Gibbs와 Martin(1964)은 어떤 지위 집합(성, 인종, 결혼여부, 특정 연령 등과 같은 지위묶음)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통합되면 될수록 지위 집합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점유되는 빈도가 더 크며, 자살과 관계되는 빈도는 더 낮을 것이라는 ‘지위 통합 가설’을 제안하였다. 즉, 지위 통합의 정도가 높은 사회들은 자살률이 낮으리라 기대되고, 그러한 지위 집합 통합의 빈도가 낮은 곳에서는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다.

Henry와 Short(1954)는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자살의 사회학적 이유라고 했다. 자살률은 구성원의 관계체계의 강도와 반비례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는 인구 구성원의 관계체계의 강도는 그들의 행위에 주어지는 외적 구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외적

구속은 그들의 지위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오은경, 2003).

4) 자살생각

자살은 자살생각에서 자살시도 그리고 자살에 이르는 연속선상에서 규명되고 있다.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보다도 흔한 현상이고 평균적으로 자살시도에서 선행된다. 미국의 자살예방에 관한 정신건강센터 특별위원회 역시 자살을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자살(completed suicide)로 구분하고 있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으로 자기 파괴적인 망상을 가지고 죽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행동, 사고, 정서를 의미한다. 자살생각은 누구나 한번쯤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상에서부터 정말 진심으로 죽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White(1989)는 자살생각을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로 정의하였다. 자살행동은 자살생각으로부터 자살기도에 이르는 연속범위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자살생각을 자살기도의 위협이 있는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Ponizovsky(1990)는 자살생각은 ‘자살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심각성이 단계적이고 위계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할 때, 자살 생각은 그 과정에서 필수 단계’라고 했다. 자살생각이 실질적인 자살행동과 동급의 의미와 파괴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이 발전되어 결국 자살행동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므로 자살생각은 그 자체로서 연구적 대상이 될 수 있다.

Brent와 Kolko(1990)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비특정적인 것, 특정적

인 것, 의도가 있는 생각, 계획이 있는 생각으로 구분하며 자살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해롭지 않을 수 있고 일시적인 생각, 다양한 해결책의 하나, 낭만적인 환상, 간헐적인 악몽일 수 있다고 했다.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의 연속적인 과정에서의 자살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자살을 고립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살의 경향성, 자살행동의 유발요인, 자살의 위험도 측정 등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자살에 대한 개념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Beck, 197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arson과 Cantwell(1982)의 자살생각이 심각했던 사람의 42%와 자살생각이 경미했던 사람의 34%가 후에 자살을 시도하였고, 자살 생각을 하지 않던 집단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연구결과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자살을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자살시도라는 것을 볼 때 자살생각의 감소는 자살 비율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자살 연구는 이미 자살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고, 자살 시도자의 경우도 사실상 접근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살생각이나 자살의도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살생각은 자살행위 자체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지만 자살변인의 한 요소로서 자살행위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자살생각 없는 자살행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와 실질적인 자살행위에 앞선 단계이므로 자살행위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의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측지표가 되므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살시도를 예방하고 나아가 자살행위까지 방지할 수 있다.

5) 여성 자살의 특이성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해보면 여성 자살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9> 연도별 여성 자살통계

(단위 : 명)

| 연도 | 여성(비율) | 총계 |
|------|-------------|--------|
| 2003 | 3,314(31.1) | 10,898 |
| 2004 | 3,613(31.4) | 11,492 |
| 2005 | 3,985(33.2) | 12,010 |
| 2006 | 3,426(32.2) | 10,652 |
| 2007 | 4,427(36.2) | 12,174 |

출처 : 통계청(2009),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

여성의 우울증세가 남성의 그것과는 다른 것처럼 여성의 자살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특이성을 지닌다. 첫째로,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자살생각도 더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의 성역할 특성에 있다고 본다. 우울증세는 여성의 성 역할 즉 수동성, 자기희생, 자기비하, 자신감의 결여 등의 여성성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성성이 높게 형성된 사람들은 남성성이나 양성성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우울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는 우울증세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견되고 임상적으로도 우울증세가 여자 환자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들이 근대적 태도를 가진 여성에 비해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 우울증세와 그와 관련된 자살생각이 100%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세

를 가진 환자의 15%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연구가 미국에서 보고 되었고 국내에서도 자살 시도자의 70% 정도가 우울증세를 포함한 정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 세와 자살생각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 험적인 일이다.

두 번째로 20대에서는 여성 자살률이 남성보다 높고 10대 여성의 사 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세~24세 연령대에서 여성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1.6명인 반면 남성은 15.2명이고, 25세~29세 연령대에서도 여성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인 반면 남성은 22.3명이다. 또한 남녀 연령별 자살 의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10대 여성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 1위 이고, 20대에서도 여성의 자살은 사망 원인 1위이며 30대에서도 2순위 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녀 연령별 총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을 살펴보면 20대의 연령대 에서 여성의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은 무려 50%에 이르지만, 남성은 30%에 불과하다. 이는 젊은 연령층인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여성이 자살로 사망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 택, 2009)

III.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우울증세라 부르는 것은 전반적인 정서장애로 개개인의 증상과 그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짧은 기간 동안의 낙담, 슬픔 등은 정상적인 우울증세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크게 방해할 수준이 아니며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다. 그러나 매우 치명적인 우울증세는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큰 비참함을 느끼며 자신의 일이나 감정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임상적 우울증’이라고 말한다. 자살과 관련한 우울증세도 여기에 속한다.

우울증세는 비단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을 시작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세에 시달리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많은 숫자의 우울증 환자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울증세는 사람마다 앓는 기간이나 강도 그리고 그 원인이 각각 다르다. 우울증세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통 생물학적인 요인에서 우울증세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한 관점에서만 이해하기에는 현대 사회의 우울증세는 그 증상이 너무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성 우울증세의 경우 여성으로 하여금 우울증세에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젠더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언제나 사적 영역에 자리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심신이 미약하고 유약하며 의존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을 가진 탓에 우울증세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결론짓

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여성들의 우울증세는 개인적 경험이 아닌 가부장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는 전체 집단의 일반적 경험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 사회적 편견에 도전하며 우울증세가 남성이 아닌 유독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성 개인의 심리적 이유가 아닌 여성이라는 집단의 사회적 위치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여성의 우울증세와 자살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여성의 자살관련 우울증세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젠더 불평등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을 고찰하였다.

1. 젠더 불평등과 가부장제

자살관련 여성우울증세의 원인은 가부장적 성차별주의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으로 이원화된 문화 속에서 여성은 늘 젠더 차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으로 여성이 비하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뚜렷한 자존감을 갖기 힘들어 졌고 결국 남성보다 자신이 가치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남성에 비해 더 많고 다양한 우울증세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젠더 불평등은 다음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여성에 대한 일반화된 적개심이나 혐오감, 둘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열등하다는 신념, 셋째, 여성과 거리를 두고 여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동이다. 여성은 이러한 성차별주의로 인해 남성들보다 더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특정한 장소와 상황으로부터 철저히 제외되고 있다. 여

성의 더 낮은 사회적 지위는 사회의 의사 결정으로부터 여성을 배제시키므로 여성들에게 불리한 성차별주의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생물학적 성이 인간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한다는 시각에서는 사실 젠더 불평등은 결코 불평등일 수 없다. 인종이나 사회계층보다도 성(性)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 안에서 개인의 위치가 정해지는데 이것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되고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남성과 소위 남성들이 갖춘 남성적인 성향은 여성의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다.

과거의 젠더 불평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면 현대 사회의 젠더 불평등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젠더 불평등은 특정 사회의 경제구조와 사회조직, 그리고 그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의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젠더 불평등은 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에게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대한 의무는 여성이 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회사 내에서 남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임금을 받거나 때로는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우리는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이라고 한다.²¹⁾

젠더 불평등은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서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유무형적으로 학대받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남편의 구타를 평생 감내하며 살아가는 여성들, 남자친구와의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학대당하는 여성들,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풍습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

21) 1980년 UN보고서 평가에 따르면 여성들은 전 세계 일의 2/3를 하면서도 전체 수입의 10%밖에 받지 못하고 세계 자산의 1%만 소유하고 있다.

고 있는 할례²²⁾, 종교라는 울타리에서 온 몸을 베일로 가린 채 평생을 살아야하는 이슬람 여성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로 희생되는 수많은 여아들. 이 모든 것이 젠더 불평등의 모습이다.

흔히 젠더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단순히 차별받는 여성만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젠더 불평등은 남성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함을 안겨 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다녀와야 하는데 군대에서 소비하는 짧은 날의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²³⁾ 그리고 보통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남성인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 여성보다 경제력이 없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기 쉽다. 이 모든 것 역시 젠더 불평등의 결과물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들은 이러한 젠더 불평등을 해소시키려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남성에게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경우 해당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절차상으로 상당히 복잡하거나 내용상으로 그 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사실 법이나 제도 자체가 어찌면 젠더적 평등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 국가를 성립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전부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모든 변화의 시기에는 여성의 이해가 아닌 지배계급인 남성의 이해가 바탕이 되었고, 다수의 남성들은 이러한 법과 제도에서 이익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만인에게 평등한 제도’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2) 여성의 음핵, 혹은 소음순의 절개.

23) 직업군인이 아닌 국방의 의무로서 군복무 중인 남성들은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남성들은 이러한 ‘가부장적 배당’으로부터 이익을 본다. 즉 여성의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의무, 임금노동, 병원 및 학교 등의 일터에서 여성의 저임금 노동, 그리고 여성의 감정적인 배려와 돌봄 등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최근 페미니즘이 젠더 불평등에 대하여 제일 강조하는 것은 젠더 불평등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 뿌리 깊게 배어 있다는 점이다. 젠더 불평등은 결혼과 가족의 조직, 일과 경제, 정책, 종교, 예술과 기타 문화적 산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²⁴⁾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이 복종하는 사회의 특징을 가부장제도라 할 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기본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는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남성적 성향이 여성적 성향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사회, 정치, 경제적 제도를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권위주의 체계인 가부장제는 남성이 집 안과 밖의 권위체제로부터 나온 자원과 대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이것을 매개로 함으로써 권력을 지니게 해준다.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현대 페미니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는 페미니즘에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억압과 착취적 관계의 총체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부장제는 페미니즘의 중심 개념이 되었으며 남성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성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남성에 의한 총체적인 여성억압 체계

24) 주디스 로버, 『젠더 불평등-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최은정 외(역), 일신사, 2005, p33.

로 정의되었다.

가부장제 개념에 대한 정의는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Bunch는 가부장제를 남성의 통치뿐만 아니라 이성애 제국주의와 성차별주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 Rich(1980)는 이성애의 강제적 성격과 정치적 제도로 보았으며, Raymond(1986)는 기존의 힘의 불균형을 지지하는 남성다운 행동/여성다운 행동에 대한 정의를 형성하기 위한 언어와 지식을 통한 문화로 파악했다. Millette(1971)와 Firestone(1970)은 가부장제를 남성권력과 여성예속을 유지, 재창조하기 위해 남성이 만들어낸 구조와 제도들의 체계로 보면서 이에 는 법, 종교, 가족과 같은 제도적 구조와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영속시키려는 이데올로기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

사회주의자나 마르크스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를 유물론적으로 본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가부장적인 노동의 젠더 구분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 주장한다. Hartman(1976)에 따르면 가부장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가부장제를, 물질적 기반을 갖춘 남성 사이의 계층 제도적 관계와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려는 남성들 사이의 결론이 존재하는 일련의 사회관계라고 정의한다.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초란 남성에 의한 여성 노동력의 지배를 뜻한다. 이 지배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생산자원에 다가가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리고 여성의 성적 기능을 통제함으로써 유지된다.

Hartman(1976)에 따르면 개개인의 남성들이 태도를 바꾸거나 의식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가부장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물질적 기반(제도와 권력 구조)을 혁명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가부장제 아래에서 남성은 여성에 대해 일종의 이익집단(interest group)을 구성한다. 이성애적(heterosexual) 관계는 이성 사이를 묶기보다는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동성 사이를 묶는다. 혼인을 부부 간의 서약이라기보다는 누이를 교환하려는 남성 성원 동료들인 의형제간의 맹약이라고 정의했던 Levi-Strauss(1955)의 생각도 그와 흡사하다. 원시사회에서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에서 남성 성원들은 각종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여성 성원의 권리를 배제하고 공통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공모해 왔다. 가부장제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역시 가부장제에 종속된 하나의 제도적 변종에 불과하다.²⁵⁾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은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자본주의를 가부장제의 근대적 형태로 보는 견해까지 가능해진다.

최근 가족 형태가 과거의 대가족 형태와는 달리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교육 역시 당연시되면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이념이 상당히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남존여비 사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부장제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교육받은 현대 여성으로서 누릴 당연한 남녀평등에 관한 의식이 미묘하게 접합된 또 다른 가부장적 가족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 여성들은 표면적으로는 즐겁고 행복하며 평등한 가족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큰 변화 없는 사적 영역에 고립된 여성으로 살아가는 가족 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가부장제의 개념은 단순히 한 가족 안에서 행해

25) 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p67.

지는 아버지의 지배라는 의미를 넘어서, 남성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여성들은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세계를 말한다. 여성학에서는 가부장제가 가족 안에서의 사적 가부장제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을 양산하는 공적·사회적 가부장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가부장제는 사람들의 습관, 문화, 성 등 일상적인 영역에까지 깊게 침윤되어 있는 관습이며 이데올로기이고 사회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남녀 간의 불균형한 관계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체계를 바로 가부장제적 사회관습 또는 사회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여성학에서는 젠더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와 관습의 체계인 가부장제 체계의 형태와 적용방식을 꾸준히 분석하고 있다.²⁶⁾

2. 고정된 성역할

성역할이란 어떠한 행위나 태도가 남녀별로 적절한가를 말해주는 문화적, 사회적 기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성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을 성역할의 사회화(sex role socialization)라고 한다.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sex)은 성역할의 사회화를 거쳐 생물학적인 것 그 이상의 차별화를 가져온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여성이나 남성을 평가할 때 각각의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생물학적 성에만 의거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적 혹은 남성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다.

26) (사)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동녘, 2005.

Block(1973)은 성역할을 한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권 내에서 여자 혹은 남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여러 자질이라고 정의하였고, Qualls(1987)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적절한 행동의 지각 혹은 규범적 규정으로 정의하였다. 성역할은 한 사회집단에서 수용하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지는 남녀 구성원간의 동일시되는 행동양식이며(Hurlock, 1983) 한 인간이 갖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에게 기대되는 가치, 태도, 인성, 특성의 문화 기대에서 오는 행동기준이다.

사회학자 Scanzoni and Fox(1980)는 성역할 개념을 성계층화(sex stratification), 성별 노동분업(the division of labor by sex), 성역할 규범(sex-role norm)의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계층화 개념은 사회에서 남성은 지배적인 집단이고 여성은 종속적인 집단이라고 보는 개념이고, 둘째로 성별 노동분업은 경제 구조론에 기초를 두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남성의 노동은 교환가치를 지니게 되고, 사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여성의 노동은 사용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보는 개념이다. 세 번째로 앞서 설명한 성계층화와 성별 노동 분업에 대한 호의적, 비호의적 태도가 성역할 규범 개념이고 이러한 성역할 규범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보상과 반대급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성역할의 사회화는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관련된 태도, 행동, 규범, 인식 등을 습득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중규범을 갖는 문화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 고정관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습득하게 된다. 성 고정관념이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들에 대한 신념'으로 이를 계속 강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성장배경으로 인해 실제 성차이보다 과장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Freud를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은 남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Mackie, 1973). 즉 남성다움(masculinity)이라 하면 '객관적, 이성적, 공격적, 합리적, 유능함'등을 이야기하고, 여성다움(feminity)으로는 '주관적, 부드러움, 감정적, 소극적, 유순함, 순종적, 자기희생'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Parsons(1942)와 Mead(1949)는 이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남성은 가외노동에서, 여성은 가내에서 부모역할과 가사에 종사하도록 되어있고 이와 같은 역할의 양극화 현상을 노동과 가족의 조화를 위한 최선의 상태로 보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서구 유럽국가에서는 남성들의 특성을 공격적, 독립적, 지배적, 적극적, 모험적 그리고 경쟁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여자들의 특성은 우아하고 정서적이고 이해심이 강하고 재치 있으며 차분하고 의존적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전형적으로 성별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오인하면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의식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려 존재하고 있다. 여성스러움이라는 성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성역할 사회화에는 생물학적인 요인, 가족, 학교, 대중매체,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성역할 사회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유형화된 성역할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역할기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차별은 이러한 남녀차별적인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자아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아개념, 자신

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자기희생과 선을 도덕적으로 여기게 하였다. 무조건적인 보살핌과 순응, 자기희생을 여성의 선행으로 간주하여 왔다. 여성, 특히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는 주체로서 지각하기 보다는 언제나 가족들의 요구에 헌신적으로 반응하는 순응자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요구에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상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역을 가진 일하는 여성상이 부각되었고 이는 여성들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가부장제도, 조선시대의 유교사상 등에서 뿌리내려진 성역할 개념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맞게 받아들여야만 할 새로운 성역할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법적 지위 향상 그리고 생활환경의 변화가 여성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오랜 세월동안 견고하게 다져진 유교사상은 여전히 뚜렷하게 구별된 성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3.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우리사회에서 가족은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족'이라는 개념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Lash(1977)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두고 '삭막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 말했다. Barret과 McIntosh(1982)는 가족²⁷⁾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첫째로 실제 사회관계와 조직

어디에서도 얻기 힘든 다양한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이라 말하는 감정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긴다. 두 번째로 가족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나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적인 환경이나 결핍된 상황에서 자랐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자연적으로 주어졌으며 그 안에서 성차 역시 자연적이라는 믿음이다. 일단 자연적인 영역으로 규정되면 비혼이나 동성애와 같은 영역 바깥의 개념들은 전부 비도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으로 Murdock(1949)은 가족을 공동거주, 경제적 협동 및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집단이며, 이 집단은 이성애 중심의 부부를 포함하고 적어도 그들 중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이성애적인 성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친자녀 혹은 입양된 자녀들로 구성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Burgess와 Locke(1953)는 가족을 혼인, 혈연 또는 입양의 유대로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이며 단일 가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 딸과 아들, 자매와 형제라는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호작용하고 공통의 문화를 만들고 유지해 가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구조 기능주의자들은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생물학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사회제도이며 통시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본다.(이재경, 2003) 또한 이들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27) Parsons와 Goods와 같은 구조 기능주의자들에게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남녀 한 쌍을 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을 의미한다. 그 외의 가족의 형태는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된다.

일체감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핵가족을 염두하고 가족에 접근한다.

일반적으로 이성애에 기반을 둔 결혼을 보편적인 결혼제도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결혼 관습과 법률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모든 사회에서 이성애가 가족형성에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우리는 일부일처제에 바탕을 둔 핵가족을 보편적인 가족 구조라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부일처제를 바탕에 둔 핵가족 외에도 무수히 많은 형태의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념에서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틀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사회적 구조 안에서의 사회적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normal-family-ideology)'이다.

정상 가족이란 도덕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표준화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유형의 가족생활 모델을 일컫는 것으로, 구조기능주의자들이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 모델을 정상가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개념이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을 '결손가정'이라 규정하며 결함이 있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소외시킨다.

페미니스트들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전담자의 성별 분업이 자연적으로 정의되는 것을 비판한다. 가족 내의 성별 분업은 여성 억압의 한 형태이며, 다른 사회제도 내에서는 여성을 통제하는 권력의 기반이 된다(Barret, 1980). 성별 구조화된 가족으로 인하여 남성에게 주어진 권력은 가장으로서 권위를 부여하고, 이러한 명분 아래 가정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또한 가족 내 권력 관계는 가족 내 의사소통 패턴, 가족의사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녀의 성별 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을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가족으로 정상화해 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성별, 연령별 위계가 작동하는 권력적인 관

계를 조장하는 것이다.(박연숙, 2000)

성별 분업은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공적 영역에 자리하게 하고, 여성은 가사전담자로 사적인 세계에 자리하게 하며 여기에서 자원과 노동의 불공평한 분배,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자녀의 사회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게 된다(이재경, 1994). 성별 분업은 여성 한부모가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것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한 성별 분업으로써 가족의 성별 분업이 노동시장 내 성별 분업으로 연장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특정 유형의 가족만을 인정하며, 보통의 성인 여성은 일반적으로 그녀들을 부양할 남편이 있거나 혹은 그녀를 부양할 가장인 아버지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가족의 구조, 기능, 합법성에서 어느 선까지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상적 가족 틀에 포함되는 가족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가족 인정 기준은 너무 엄격해서 한국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상적 가족의 형태는 '합법적인 혼인으로 맺어진 남녀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녀들'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른 많은 형태들의 가족들(한부모 가족, 독신 가족, 동성 가족, 대안 가족 등)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여겨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정상적 가족 형태는 남성 중심으로 이상화된 전형적 가족을 지지함으로써 가족 내의 특정 지위와 역할을 공고하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한다.

따라서 유일한 가족의 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의 관념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주의자들에 의해 구성되었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성,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에 따른 가족 경험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4. 빈곤의 여성화

빈곤이란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은 소득과 소비에 근거한 것으로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 경제적 빈곤선 이하의 소득이 획득되고 소비될 때 빈곤층으로 간주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빈곤퇴치 방식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제적 지수로의 평가가 아닌 개개인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 의식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빈곤을 개념화하는 방식도 있다.

최근 빈곤의 개념이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이다. 빈곤이 인적자본과 사회변동 고용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에 비중을 두는 반면,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근본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으며 취업, 주거 및 기타 적절한 생활조건 등과 같은 사회의 제반기회와 주요 결정과정으로부터 차단되는 불이익의 결과로 이해한다. 또한 기존의 빈곤에 대한 논의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결핍에 주목했던 것에 비하여 사회적 배제는 경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심리적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배제의 결과 측면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과정에 이르는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즉 사회적 배제는 반드시 경제적인 조건의 박탈, 즉 실업과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 서비스, 주택이나 건강보호 등과 같은 사회전체적인 차원의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송다영, 2003 재인용)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소득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여성가장 가구의 수가 같은 조건 하의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문제에 있어서 성별 변수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기한 학자는 Pearce로서 앞서 말한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을 여성문제로 쟁점화 시켰다. 1976년 Pearce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빈민 중 약 2/3, 성인 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반 이상이 여성가구주였다. 이러한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빈곤계층 증가의 상당 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해준다. Peterson(1987)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가 80년대까지 지속되는데 빈곤 가족의 1/2이 여성가구주이며 여성가구주의 빈곤률은 남성가구주의 3배, 일반가구의 5배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크니스너 등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여성수의 절대적 증가를 '빈곤의 여성화'라고 명명하였다.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 가구주의 증가는 빈곤의 여성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빈곤의 여성화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Pearce(1978)는 빈곤여성문제를 노동시장의 성분절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직업의 계토화 및 차별 때문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Joan Smith(1986)는 그것이 빈곤에 대해 여성이 점점 더 취약해지면서 생긴 결과이며, 직업적인 성 분절에 의해 더 강화된다고 했다. Leonor Weitzman(1985)은 빈곤의 여성화가 가족구조, 결혼과 이혼 등에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Peterson(1987)은 빈곤가족에서 특히 여성가구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로 가족구조, 노동시장, 복지 프로그램 등과 관련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빈곤의 원인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주변화되어 있고,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보살핌 노동자로 보는 이분법적인 우리 사회구조로 인하여 여성 한부모 가족은 빈곤해진다. 이것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일한 직종의 동일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성별분업을 조장하며 노동시장의 성별분업으로 인하여 여성의 일은 하찮은 일로 간주되어 업무 외에도 책상을 닦는다거나 차를 타는 등의 잡무를 도맡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성별분업은 여성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작용을 한다.

빈곤의 여성화 요인들은 단일요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gender)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요인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탈빈곤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빈곤은 그 회복률이 남성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는 빈곤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IV.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10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자살과 관련한 여성 우울증세의 젠더 불평등 원인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20대이며 전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대졸 혹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고학력이다. 이들은 극심한 우울증세로 인해 자살을 생각했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정신과적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우울증세로 인한 정신과 상담과 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본인 스스로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우울증세는 정신적인 부분인 만큼 그 증세의 경중을 연구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우울증세에 관한 사건이나 경중을 본 연구에서 논하지 않았다. 대신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풀어내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세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은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이유로 과거에 앓았거나, 혹은 현재 앓고 있는 우울증세의 대표적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을 생애주기별로 우울하게 만드는 동일한 사회적 환경에 연구 참여자 전원이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우울증세의 원인이 복잡적임과 동시에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1. 노동과 여성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임금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며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직장을 갖는 취업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취업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여 200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를 보면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여성이 55.9%에 이르러 여성 2명 중 1명꼴로 여성도 평생직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아동을 양육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직업을 갖겠다는 의견(23.5%)까지 포함하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여성들의 비율은 1991년 41%에서 2009년 8%로 감소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여성 직업과 남성 직업을 구별한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싶어 하지만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과 봉사직, 그리고 교직은 전형적인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된다. 대부분의 여성 직업은 단조롭고 도전적이지 못하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여성 직업은 지위도 낮고 봉급 수준도 낮으며 승진 기회도 거의 제공받지 못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직업 조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일에서 어떤 보람이나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은 독신 여성으로서 혹은 기혼 여성이나 한부모로서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그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직업의 구별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내나 어머니의 임금을 받지 않는 가사일의 연장선상이나 타인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여성들은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이나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 혹은 설거지나 청소하는 사람으로 일하고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일반 직원으로 많이 활동한다. 대표적인 여성 직업인 간호사는 환자를 애정적으로 돌보고 좋은 아내와 같이 의사의 보조를 맞춘다. 또한 교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 양육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특히 비서직은 상급자에게 개인적 봉사를 제공해야 하므로 가정주부의 가족 돌보기와 큰 차이가 없다.

1) 취업 문제

이게 자랑은 아닌데 내가 정말 회사 면접이라면 질리도록 본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제는 기계적으로 면접 보러 다닐 정도니까 알만해?(웃음)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면접 보러 가면 정말 10군데 중에 8군데는 물어봐 나한테. 남자친구 있냐, 결혼할 거냐…….그래서 철없을 적에는 결혼할 거라고 말했지. 되게 당당하게(웃음) 그럼 또 그래 결혼 하면 일 어쩔 거냐, 애는 어쩔 거냐…….근데 그걸 왜 물어보는 건지 나는 의문인 거야. 남자 지원자들한테는 그거 안 물어보거든. 근데 왜 나만, 왜 나한테만 물어보는 건지 난 진짜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 안한다고,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대중 둘러대는데 솔직히 기분 나빠. 떨어질 때마다 내가 결혼하고 일 그만둘까봐 떨어트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김윤경, 28)

나 예전에 회사 면접볼 때 결혼할 거냐, 애는 낳을 거냐 그런 거 물어봐서 좀 불쾌하다는 표정 지었더니 압박 면접이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더라. 내

가 취업카페라는 카페는 전부다 가입되어 있었는데 남자애들한테는 그런 류의 압박 면접은 한 번도 없고 죄 여자애들만 그런 질문 받았다고 기분 나빠하는 글 투성이었지…….(김지연, 28)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2009)를 보면, ‘가정에만 전념하거나 결혼 전까지 취업하겠다.’는 여성 응답자 비율이 1988년에는 35.3%나 되던 것이 2009년에는 8.0%로 대폭 줄어든 반면, ‘가정과 상관없이 취업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988년 10.4%에서 2009년 55.9%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졸업한 여성들은 ‘결혼은 선택, 취업은 필수’라고 할 정도로 90%를 상회하는 취업욕구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불안정하다. 김윤경과 같이 취업을 위한 면접 장소에서 결혼과 결혼 후의 육아, 혹은 가사노동을 공공연하게 문제 삼는 행태는 비일비재하다. 김지연 역시 취업 후의 육아 문제에 대해 문제 삼는 듯 한 회사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성 구직자의 경우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 등이 취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김지연, 김윤경과 같은 여성 구직자의 경우에는 당락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남성=사회, 여성=가정이라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여성들은 생계 책임자가 아닌 돌아갈 가정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지난 IMF나 최근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정리해고대상 1순위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스펙 있잖아. 나 그거 좋은 편이란 말이지. 토익에, 회화도 어느 정도 되고, 경력도 빠지지 않고, 학점도 좋고. 그런데 자꾸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 그런 거 알아? 나랑 같이 취업 스테디하던 오빠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객관적인 스펙 나에 비해 아니었거든. 그런데 그 오빠는 되고 나는 안 된 거야.

왜 안됐을까, 왜 안됐을까, 자꾸 생각하는데 이거 자기비하일지 모르지만 뭔가 내가 남자였다면 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도 그러고. 그런데 그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미치겠는 거지. (김윤경, 28)

솔직히 여자라서 불리한 거 맞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이고 니가 잘났으면 취업이 안 되겠냐 하겠지만 솔직히 취업 준비해본 사람들은 알 걸. 여자라서 더 힘든 거. 그러니까 우리는 두 배로 싸우는 거야. 여자라서 불이익 당할 거 감수할만한, 그것을 덮을만한 또 다른 스펙이 필요한 거니까. 안 그래도 고스펙 시대인데 정말 억울한 거지…….(김지연, 28)

취업을 희망하는 김윤경, 김지연과 같은 무수히 많은 한국의 20대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이 남성보다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 사회적 고민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개인적인 자기비하 혹은 성별을 핑계삼은 실패에 대한 자기위안 정도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의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실질적인 원인은 ‘취업의 우선권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성차별적 고용에 대한 이유로 흔히 거론되는 생물학적 능력 차이는 더 이상 객관적인 근거로 사용되지 못하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취업구조의 특이한 사항 중 다른 하나는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1980년에 21.6%이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2000년에는 65.5%로 증가세를 보이며, 대학입학자 중 여성의 비율 역시 1980년 26.9%에서 2000년에는 46.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여성의 학력 수준이 향상된 것과는 달리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9년 통계청의 「성/교육 정

도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같은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 참가율 역시 89%로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율은 고작 58.1%에 불과하다. 이는 2002년 OECD 국가의 25세 이상 대졸 여성의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이 83%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하는 여성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에 있고, 근로소득은 남성의 61%에 불과하다. 고학력 여성은 사회적 성취에 대한 주위의 압박과 더불어 본인 스스로의 기대치도 높아 좌절감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성취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보다는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귀인시키기 쉽기 때문에 김윤경과 같은 2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관련 우울증세는 증가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여성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결혼과 출산 등으로 단절되는 M자형 여성 취업 유형과 고학력 여성들의 낮은 취업률 등을 볼 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여전히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말 이거 쌍팔년도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우리 회사 부장이 아침마다 나한테 커피 주문하잖아. 어이 미스김 어찌구 하면서.....거기다 대고 까칠하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하고는 있는데 아침에 눈 딱 뜨면 커피 타 줄 생각부터 드니까 기분이.....그리고 뭐 자질구레하게 치울 일 있거나 그러면 그거 또 전부 여직원들 시켜요. 차라리 무거운 걸 들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해. 나는 팔에 근육도 있다구.(웃음) 내가 웬만한 남자보다 나을 텐데. (김지연, 28)

나한테 복사 같은 거 맡기고 내 남자직원이랑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자고 할 때면 내가 이 회사 빨리 때려치워야지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는 생각 한단니까. 그깟 복사가 뭐 어때서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하루, 일주

일, 한 달, 일 년 내내 그러면 사람 미쳐요. 아니 지들은 손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런 꼼꼼한 일은 역시 지은씨가 잘한다니까." 복사 하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엄청난 꼼꼼을 요구하는 고퀄리티 일이었다? (박지은, 26)

김지연과 박지은은 같은 과정의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맡아야 하는 일들에 대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런 일들은 언제나 공식적으로 문제시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녀들은 불만을 호소할 수도, 항의를 할 수도 없다. 그녀들은 계속 회사에 다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분위기를 결코 와해시켜서는 안 된다는 룰아닌 룰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남 일 같지 않은 일 하나 또 있지. 승진 잘 안 되는 거. 우리 팀장님 가정 있고 애도 있지만 누구보다 정말 일 잘하거든 알미울 정도로. 딱 부러지고 사리분별 잘하고. 그런데 애매하게 승진이 2번이나 밀리는 거지.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 하지만 항의 하기는 그렇고 남 일에. 우리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김지연, 28)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차별 문제를 포함한다. 여성단체의 발달과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씩 보완되면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차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줄어든 것이 사실이나, 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서의 간접적인 차별²⁸⁾은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28) 간접적인 차별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중립적인 기준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립적인 기준 자체가 여성과 같은 소수집단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 우회적인 방법으로서의 차별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표10> 여성취업 장애요인²⁹⁾

(단위 : %)

| 사회적 편견 및 관행 | 여성의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 불평등한 근로여건 |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부족 | 제한된 구인정보 | 육아부담 | 가사부담 | 잘 모르겠다. |
|-------------------|---------------------------|--------------|----------------------|-------------|------|------|------------|
| 19.6 | 2.8 | 11.5 | 1.5 | 3 | 49.9 | 6.3 | 5.3 |

출처 : 여성취업 장애요인, 통계청 2009

2) 임금 격차

사회가 변화하면서 여성이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지만 성역할에 따른 분업, 성별에 따른 위계, 임금 격차에 의해 보통 여성의 노동은 하위직업, 비숙련 단순 노동직에 집중되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대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상승이나 경제적 여유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여성들의 고용형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간제, 임시직 등이 많아 경기의 변동에 따라 쉽게 실업자가 된다. 노동력이 부족한 호황기에는 여성 역시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싼 값에 노동력을 이용당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여성은 한순간에 ‘보조적 노동자’가 되어 명예퇴직이나 계약해지 상태가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에 국제금융자본의 요구에 따라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법을 입법화함으로써 여성들이 일차적으로 해고되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고 정규직 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대치하는 등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정

29) 200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여성취업 장애요인 중, 15세 이상의 전국 여성들이 생각하는 여성취업 장애요인의 주요 답변이다.

부와 기업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에 따라 여성 직업 형태 중 파견제, 시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절약과 탄력적인 노동력 활용, 노조 조직력 약화 등을 목적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력은 남성 노동력에 비해 적은 자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³⁰⁾

여성의 임금 노동은 남성의 임금 노동에 비해 직업의 수준이나 월급의 수준이 낮다. 여성들의 낮은 임금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낮은 지위의 직업을 갖는 데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동등한 지위의 직업을 가질 때조차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매년 여성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1994년 기록에 따르면 취업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6.8%에 불과하다. 미국 백인 여성들이 백인 남성 소득의 약 76%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직업 여성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남자, 여자 똑같은 일 하는데 급여가 같은 게 맞거든? 근데 공장 같은 그런 진짜 현장에서 그게 먹힐 거 같애? 아니올시다야. 우리 엄마 공장 나간 지 벌써 십오 년인데 남자가 훨씬 더 월급 많이 가져가거든. 실제로 하는 일은 같은데 뭐 무거운 거 더 들고 그럴 수 있다는 가정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같다는데…….우리 엄마 만날 그러잖아, 누가 무거운 거 보면 남자 찾고 그러냐고 그냥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지. (한수연, 28)

한수연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노동자로 공장에서 근무해왔다. 법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종사하는 분야가 같으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

30) 이현숙(1999), '아시아 여성, 우리는 누구인가', 대한기독교서회.

시되어있지만 암묵적인 동의하에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에도 어김없이 성차가 나타난다.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2006년의 통계를 보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 비는 OECD국가 평균 80%에 미치지 못하는 63.4%로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다.³¹⁾ 교육이나 경력, 직업 등의 종류로 설명할 수 없는 고학력 전문직 남녀 임금격차는 성별화된 태도와 관행의 영향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노동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노동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남성은 생계부양자로 보는 기본적인 임금체계는 빈곤의 여성화를 부추긴다.

비정규직은 여자들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느껴져 가끔. 이것저것 알바 많이 해봤는데 내가 여자로서 하기 쉬운 일들은 다른 여자들도 그런 건지 진짜 여자들 많더라. 거의 다야.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관리직은 보통 남자지. 이걸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했었어. (한수연, 28)

노동의 유연화와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1990년대부터 정규직 고용자보다 임시 고용이나 일용 고용과 같은 불안정하고 비정규적인 형태의 고용이 매우 많아졌다. 비정규직 근로 형태는 일반적인 임시직이나 시간제 외에도 파견 및 용역 근로, 일용노동, 독립도급, 가내근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견근로³²⁾는 동일 업종의 비정규직 여성에 비해서도 20% 이상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파견 근

31) 통계청(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2) 파견근로란 채용은 파견업체에서 하고, 일은 사용자업체에서 하며 임금은 파견업체를 통해 받는 고용 형태이다. 텔레마케터, 컴퓨터 보조원, 비서, 여행 안내원, 조리사, 수금원, 사서, 번역가 등이 있다. <(사)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동녘, 2005>

로가 여성 직종화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 가족 안에서의 여성

1) 가족과 결혼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을까. 가족이란 개념은 가정을 아주 사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특성상 사회적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흔하게 가족과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족'이라는 객관적인 정의나 개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에는 특정한 이미지가 있다. 엄마, 아빠, 아이로 구성된 단란한 모습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이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족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 외의 모습은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상 가족이라 생각하는 핵가족의 형태는 전체 가족 유형 중 약 5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포함된 남성 생계 부양 구조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줄어들 것이다.

<표11> 가족 유형의 구성

| 가족형태 | | 구성비(%) |
|---------------|----------|--------|
| 2세대 가구(부부+자녀) | 부부+자녀 가구 | 51.2% |
| | 기타 | 1.2% |
| | 소계 | 52.4% |

| | | |
|----------------|-------------|-------|
| 2세대 가구(한부모 가정) | | 5.2% |
| 1세대 가구(부부) | | 15.0% |
| 3세대 가구 | | 5.9% |
| 단독 가구 | 여성 미혼 가구 | 3.7% |
| | 남성 미혼 가구 | 2.9% |
| | 독거 여성 노인 가구 | 3.6% |
| | 독거 남성 노인 가구 | 0.3% |
| | 이혼/사별 단독 가구 | 4.6% |
| | 기타 | 0.4% |
| | 소계 | 15.5% |
| 기타 | | 6.0% |
| 전체(3500가구) | | 100% |

출처 : 여성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2003

결혼과 여성 우울증세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 남성의 경우 기혼의 상태가 미혼의 상태보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 기혼의 상태가 미혼 상태보다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결혼한 여성들은 결혼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우울증에 걸리지만 이와 반대로 미혼 남성은 미혼 여성보다 더 많이 우울증세에 시달린다.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력하다고 느낄 때 우울증은 가중될 수 있다.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과 아내의 세력관계는 동등할 수 없다.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부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자원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 남편들이 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세력은 남성과 여성의 타고나는 불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처럼 특정한 환경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세력이 불공평해졌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닌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이유 때문

이다.

이처럼 결혼 생활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우울증세에 취약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편은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다. 남성이 결혼생활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과 관계가 있다. 보통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결혼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사회적 지위에는 경제적 능력, 교육의 수준, 사회적 명성 등이 있다. 이렇듯 더 많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남편들은 아내보다 높은 대우를 받으며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결혼생활에 있어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우리 문화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남성들은 보통 자신보다 더 어린, 더 높지 않은 교육을 받은 여성을 아내로 선택한다. 여성들은 반대로 자신 보다 나이가 많은, 더 높은 교육을 받은,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남성을 남편으로 삼기를 원한다. 이러한 부부 형태는 부부관계를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하관계로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성이 경제력을 갖는 경우는 어떠할까? 이런 경우에도 아내의 지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아내보다 남편이 언제나 더 큰 권력을 갖고 더 높은 지위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가 얼마나 버는 가’는 상관없이 남편은 아내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부부가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여성은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아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것이고 동시에 남편의 기를 꺾는다는 이유로 지탄받는 경우도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결혼 생활 내에서 남편에 비해 권력을 적게 가진 여성은 결

정권을 가진 남편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하고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온 힘을 쏟게 된다. 대등한 관계가 아닌 이러한 남편과의 상하관계 속에서 아내의 불만족스러운 생활은 계속 되고 결국 많은 심리적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며 우울증세에 빠지게 된다.

2) 가사노동 문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나의 휴식처’라고 이야기한다. 아늑하고 따뜻한 쉼의 공간이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이다. 그러나 전업 주부에게도 과연 가족과 가정이 단순한 휴식처일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안식처로서의 가족의 기능에 대한 일종의 강요는 전업 주부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도록 요구되어진다.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폭력행위는 사적공간에서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당하기 일수이다. 실제로 가정 내에서의 아내 폭력은 2009년 7월 현재 4764건을 기록하고 있다.³³⁾ 가정의 화목과 쉼터의 역할은 권력 관계 안에서의 어느 한 쪽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이데올로기이다.

가정은 안식처라는데 요새 같아선 난 그 말 잘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서 남편 내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그럼 또 저녁이야. 그럼 또 저녁 해서 밥 먹이고.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기계야. 그런데 남편은 집에서 내가 먹고 노는 줄 알아. 투정이라도 부리려고 하면 편해서 그런다고 말 딱- 자르는데 내가 이 결혼 왜 했나해 그럴 때 마다. (유혜미, 29)

유혜미는 자신이 남편에게 부인이 아닌 ‘식모’로서 존재하는 것 같다는

33) 경찰청, 「가족폭력 발생 건수 추이, 2009.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가사노동에 매달리는데도 남편은 그녀가 집에서 그저 편안한 휴식을 즐긴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최근 그녀의 최대 불만이다.

가사노동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돌봄 노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 전부의 의식주를 위한 행위와 육아 등이 포함된다. 가사노동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달리 퇴직금도 없이 평생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최대의 노동이다. 그러나 비가시적인 가사노동의 특성상 가사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가사노동은 반복성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시지프스의 노동’이라고도 불린다. 현대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고립된 노동이며 동시에 여러 가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종종 강하고 집중적인 노동이 요구된다. 가사노동은 임금노동에 비하여 자율성이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주부가 가사노동의 양과 질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라 가사노동의 시간과 질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다. 가사노동을 하면서 자녀와 환자, 노인을 돌보는 일도 병행하게 된다. 가사노동에는 육체노동만 아니라 관리노동도 포함되는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감정 관리도 몹시 중요하다.³⁴⁾

현재 가사노동은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의 분할이나, 국민연금 문제와 그 외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급부에서 그러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계와 각종 여성운동단체에서 여러 방면으로 대책

34) 이재경 외, 『여성학』, 미래인, 2008.

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여성의 가사노동은 노동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엄마가 거의 평생을 아버지랑 맞벌이를 하셨는데, 평생을 집안일도 하신 거 같애. 같은 게 아니라 평생 했어!(웃음) 내가 크게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내 머리로도 이걸 좀 아닌 거 같은 게 아니 둘 다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둘 다 집안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엄마는 아침저녁으로 허둥지둥 인데 아빠는 느긋하게 준비해서 나가고 들어와서는 티비보고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건방지단 소리 들을까봐 한 마디도 못하고.....(최영백, 23)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가사 참여도 통계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수치는 맞벌이를 하지 않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에 비해 불과 5분 정도 더 길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경우 주말에 가사노동에 쏟는 시간이 평일보다 훨씬 늘어나지만 남편의 경우는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들은 보통 가사노동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도와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남성들도 다를 바 없다.

<표12> 맞벌이 부부의 요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단위= 시간: 분)

| | 가정관리 | | 가족 보살피기 | |
|--------|------|------|---------|------|
| | 부인 | 남편 | 부인 | 남편 |
| 비맞벌이가구 | 4:20 | 0:46 | 2:37 | 1:02 |
| 맞벌이가구 | 2:51 | 0:50 | 1:13 | 0:56 |

출처 : 통계청, 「혼인상태 별 행위자 비율」, 2004

직장여성과 전업주부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Bimbaum(1975)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직장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자주 부딪치게 된다고 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Campbell(1981)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분노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주고 생산적인 일에 높은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관을 포함하여 많은 장점을 제공하고 대인관계 형성에 유용하며 건강한 대인관계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형태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존경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증세와 염세주의를 보이며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4배 이상의 불안정한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울증세와 욕구불만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부로서의 가사노동은 진정한 의미의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자본에 의해 평가와 보수를 받는 외부 노동시장의 일과는 달리 가사노동은 자본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일이므로 가사노동은 상품 가치

에서 제외된다. 여성은 그 안에서 생산하는 존재가 아닌 단지 소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부로 살고 있는 여성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내이자 보조자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남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나”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상대방에게 알린다. 여성의 정체성은 곧 여성이 의존하고 있는 남편의 정체성의 일부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3) 일상화된 가정폭력

2001년 경찰청의 가정폭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14,585건 중 아내 학대가 12,323건(8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³⁵⁾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정의하자면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가족폭력(family violence), 관계폭력(relationship violence), 친밀한 폭력(intimate violence), 파트너 학대(partner abuse), 또는 부부폭력(marital violence) 등과 같은 성 중립적 개념들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가정폭력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아내구타(wife battering), 아내학대(wife abuse), 매 맞는 아내(battered wives)와 같은 성이 전제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폭력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이원숙, 1998).

Masi(1981)는 부부 간의 학대를 ‘두 사람 사이의 합의 하에 일어나는

35) 경찰청(2001), 가정폭력 통계자료.

가학적-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 없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고, Scott(1974)는 부부 간의 학대를 '배우자의 공격적 결과로서 심각하고 반복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Gelles(1980)은 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상해적 폭력 뿐 아니라 비상해적인 폭력 즉, 피해를 유발하는 비(非)신체적 학대 행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지영, 2008).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1983년 서울 여성의 전화가 개설되어 피해사례가 수집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실태 및 그 심각성을 여론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면서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의 소리가 확산되었다.

지난 2004년 여성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혼인 경험자 6156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5.7%가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은 그저 집 안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Straus와 Gelles(1990)의 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학대사건과 관련해서 경미한 폭력의 경우에는 7%, 심각한 폭력의 경우에는 21%의 아내들만이 경찰을 불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낮게 나타난다. 한 예로 한국 여성의 전화 1996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경찰을 불렀던 아내들은 2.9%에 불과하였다. 아내들이 경찰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사생활을 공개하는 데서 오는 거부감, 경찰 중재의 낮은 효과성, 남편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가족이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볼 수 있다(한지영, 2008).

그러니까 나는 매 맞는 엄마의 자식이자, 매 맞는 딸로 자랐거든? sbs에서 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서 막 애비가 자식이랑 부인 때리는 거 나오면 사람들 난리나 저거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는 나는 보면서 마냥 남 일 같지가 않은 거야 나도 저렇게 자랐으니까. 내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개랑 나는 그거 안 봐, 절대 안 봐요. 보면 울컥 울컥 하거든. 내 남동생 지 아빠같이 절대 안 산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개도 아빠가 가진 폭력적인 성향이 아주 없는 게 아니거든. 근데 누굴 탓하겠어. 그저 마음만 아파하는 수밖에. 그리고 아빠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지…….(이혜란, 24)

이혜란은 여전히 가정폭력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아마도 정상적인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혜란의 남동생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어린 시절 보아온 가정폭력은 이혜란에게 남성이라는 본질적인 존재 자체를 거부하도록 만든 셈이다. 가정폭력은 폭력이라는 비인간적인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육체적 후유증은 물론이거니와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을 동반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정의 해체를 야기하는데 폭력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부친살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는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지.’라는 다짐과는 달리 가정 내의 폭력 행위가 학습의 장이 되어 가정 폭력 재생산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실제로 연구자는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을 위한 교육장에서 폭력 아버지를 둔 아들을 만난 경험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극복하고자 가정폭력상담 교육을 자청해서 받고 있었다.

최근 가정폭력에 관련한 특별법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들이 생기면서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이 진일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저 사적 영역에서의 소소한 일로 치부되는 경향은 변함이 없다.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혹은 신고는 이루어지나 경찰의 훈계와 훈방 정도로 마무리 되는 가

정 폭력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4) 목인되는 남편의 외도

생각해보니 우리 아빠도 바람났었다. 근데 드라마 같은데서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좀 황당하긴 해도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되게 심장 뛰게 놀라고 그러진 않았던 거 같애. 만약에 엄마가 난리치고 아닌 말로 칼부림이라도 냈으면 아 이게 되게 큰일이구나 하고 어린 맘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엄마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 같은 게 암 말 안하고 넘어갔었어. 뭐 뒤에서는 말했을라나? 어쨌든 내 앞에선 그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난 그게 별일이 아닌가보다, 뭐 일종의 오해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은데 요새 생각해보면 그게 별 일 아닌 게 아니었던 거지. 그냥 엄마가 참고 넘어갔던 거야. (백영지, 25)

백영지의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한다. 백영지는 집안의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집안의 명예와 체면을 잃지 않고 지키려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라고 추측했다.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집단 의식과 체면 의식이 작용한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단순히 부부의 일만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시댁 혹은 친정의 일로 확대하여 이해하고 적용하며 시댁과 친정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며 처신하게 되고 자녀들의 미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게 된다.

우리 아빠 생각해보면 별 짓 다했지. 아빠 바람도 쐬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셀 수도 없을 거야. 웃긴 건 아빠는 그게 무슨 바람이냐는 거야. 그냥 술 먹고 논 거지. 뭐 그따위 논리가 다 있대. 아니 왜 그건 바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아빠라는 사람 웃긴 거 뭐냐면 지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람피우고, 나 때리면서도 나보고 어두워지기 전에 일찍 일찍 다니라 그랬던 거. 그 말 할 때 제일 웃었잖아. 웃다가 또 맞고…….(이혜란, 24)

이혜란은 아버지의 외도를 바라보며 사실상 남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실망감과 동시에 분노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가정폭력과 더불어 아버지의 외도까지 경험한 그녀는 이러한 우울한 감정을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드러내어 풀기 보다는 혼자서 잘 극복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는 본인의 가벼운 언행으로 이러한 위기에서 가족이 와해될 수도 있고 앞서 말한 체면의식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우선시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외도는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섹슈얼리티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성관계만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에 여성 정절 이데올로기(여성의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를 쌓아 올렸다. 이 울타리 안에서 여성의 성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여성은 그저 재생산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질뿐이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성매매는 외도로 보이기 커녕 어찌면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로 자리매김했다. 기혼 남성의 결혼 외 성관계는 허용되는 반면 여성의 혼외 성관계는 이혼의 결정적 사유 및 사회적 매장의 요인이 된다. 또한 아내들은 남편의 일회적 혼외 성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혼외 성관계를 통해 결혼계약을 파기할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사적 영역에 묶여 있는 여성들의 경우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리 사회 특성상 유달리 강한 모성애는 이혼 이후 아이들의 양육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기혼 남성들의 일상화된 성매매가 이혼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³⁶⁾ 대개의 경우 이해란과 백영지의 어머니처럼 참고 넘어가며, 묵인하고 지나치는 것이 보통이다. 결론적으로 이성애 제도와 한국적 특성인 순결 이데올로기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암묵적인 동의하에 쉬쉬하고 넘어가는 성매매와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는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몸이 지배하는 사회와 여성

그래 나 똥똥하고 안 예뻐. 안 예쁘다기 보다는 못생긴 거지. 피부도 안 좋고 키도 작아. 난 그래서 솔직히 늘 주눅 들어 산 거 같애.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도 그 리쌍 노래처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예요 정말. 정말 안 예쁘면, 나같이 못생긴 사람들은 살기가 힘든 세상이야 이 세상이야. 예쁜 사람? 날씬한 사람? 피부 좋은 사람? 키 큰 사람? 한 마디도 하지 말라 그래. 절대 이해 못할 걸 내 마음..(박지은, 26)

나는 취업이 안 되니까 내가 똥똥하고 못생겨서 안 되는 거 같다는 생각 자꾸 들어. 그런데 아마 100% 아닌 말은 아닐 거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 나는 정말 실감하면서 살고 있거든. 아마 내가 예뻐다면, 내가 날씬했다면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지도 않았겠지. 예쁘고 날씬한 게 능력인 사회야 이 사회는 정말…….(김윤경, 28)

바야흐로 몸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20대 여성 중

36) (사)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동녘, 2005.

에 몸무게에 민감해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을 만큼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는 다이어트, 성형 등의 몸에 관한 단어가 언제나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N포털의 지식검색에는 이 정도면 마른 건지 뚱뚱한 건지를 묻는 질문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씩 올라온다. D포털의 다이어트 및 미용 관련 카페는 몇 백만 명의 회원 수를 자랑한다. 어느 순간부터 여성의 외모는 경쟁력이자 무기가 되었고 외모를 갖추지 못한 여성은 도태되는 것이 순리가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른 몸 혹은 날씬한 몸이 미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의 기준은 역사의 흐름과 국가, 종교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다.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19세기 이후 날씬한 여성의 몸이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각종 미디어의 몸짱 열풍과 TV 속 스타들의 어찌면 비정상적인 몸매들이 보편적인 몸으로 인식되면서 다이어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행위가 되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모든 회사 입사를 위한 규정에는 키 160cm~165cm, 몸무게 45kg, 용모단정 등이 입사 조건에 명시되어 있었다. 여성의 몸매관리는 능력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하나의 덕목쯤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러한 입사 규정은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있어 아름다움은 중요하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커리어와는 관계없이 매력적인 여성으로서의 미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미스코리아 대회를 비롯한 각종 아가씨 선발 대회는 여전히 아나운서를 비롯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된다. 박지은과 같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단순히 개인적인 콤플렉스로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남자친구는 나보다 키가 큰데 나보다 얼굴이 작아(일동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난 정말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남자친구 나한테 우스갯소리로 네가 여자냐, 이 얼굴살을 봐라 어찌라 하는데 내가 미쳐요 정말. 남자친구는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데 나는 계속 찌기만 하는 것 같고. 묻지는 않았지만 잘하면 내가 몸무게가 더 나가겠어. 스트레스야 아주. (최영백, 23)

최영백은 최근 신조어인 '큰얼굴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몸 숭배 문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각종 강박증에 시달리게 만든다. 실제로 최영백의 얼굴을 크지도 않았고 그녀의 몸은 뚱뚱하지 않은 정상적인 몸의 소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동안 항상 본인은 뚱뚱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는 했다.

우리나라 미혼 여성 중 81.8%가 현재 체중에 만족하지 못할 만큼 날씬하고 마른 몸에 대한 환상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80~90%가 다이어트를 해봤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여성들이 '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잘못된 다이어트의 시도와 실패는 단지 체중 감량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신진대사량 저하, 근육 감소, 자신감 상실, 빈혈, 골다공증 등의 후유증과 함께 거식증, 폭식증 그리고 섭식장애까지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너무나 마른 몸을 이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신체크기왜곡증후군³⁸⁾을 앓기도 한다. 자신의 몸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사회적 시선으로 빚대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20대 여성들은 오늘도 체중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한다.

37) [매일경제], 2009년 6월 8일, '살에 대한 두려움이 낳는 질병들'

38) 신체크기왜곡증후군 (BIDS : Body Image Distorted Syndrome) : 자신의 몸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의학적 용어이다. 자신의 체지방률이 생명을 위협할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과체중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집에서 자꾸 살을 빼라고 난리야. 한약을 먹으라고 하질 않나, 어디 유명한데서 침 한 방 맞으면 배가 쑥 들어간다고 하질 않나. 집 앞에 있는 새로 생긴 헬스장에 다이어트 에어로빅이 있다면서 운동을 해보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돈도 내주겠대. 그래서 '그럴 돈 있으면 나 책이나 사보게 좀 주소' 했다가 등 짝 한대 세계 맞았지. 아니 난 그냥 살만한데 왜 자꾸 나보고 살을 빼라는 거야. 우리 엄마 말이 니가 결혼을 안하고 사는 건지, 못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살 하나에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성희, 29)

나도 요새 남편이 집에서 놀고먹으니까 살만 찌는 거 같다고 살 좀 빼라고 말 툭툭 던지더라. 누구 와이프는 뭐 애를 둘을 낳고도 사십몇킬로라느니, 황신혜 좀 보라느니.....집에서 내가 놀고먹는 다고 생각하는 것도 열 받지만 나보고 살을 빼라 어쩌라 하면서 황신혜에 비교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나는 일반인이란 말이야.....(유혜미, 29)

몸을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 몸에 관한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중이다. 최근 '웰빙'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각종 몸에 관한 사업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애초에 '웰빙'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물질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웰빙'은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점에서는 각종 다이어트 운동법과 식이요법 관련 책자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고 있고, 미디어에서는 몸짱 열풍을 주도한다. 헬스와 같은 기본적인 운동을 떠나 요가, 필라테스, 태보, 킥복싱 등 몸매 관리를 위한 각종 운동이 소개되고 우리는 '몸을 위한 사회'를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한다. 물론 가시적으로는 그 어떤 몸 산업도 상업적임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혹은 '건강을 위해' 라는 타

이들로 진짜 속내를 교묘히 감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몸에 대한 과잉 충성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함인 것일까? 몸만들기 열풍은 진정 자기 관리의 일환일 뿐일까? 사회적인 시선에 급급해 우리는 이미 우리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일 지도 모른다. 미디어가 조장하는 몸짱 열풍은 또 어떠한가. TV 속을 장식하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연예인들, 그리고 최근 바람이 분 일반인 여성의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³⁹⁾ 등등…….어쩌면 미디어는 여성의 몸과 외모를 상품화하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몸 숭배 사회에서 발달하는 몸 산업은 여성을 능력이 아닌 몸으로 서열화하면서 외모 지상주의를 구성한다. 외모 지상주의에서 외모를 갖지 못한 여성들은 몸이라는 자본을 가지기 위해 몸 산업에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여성의 몸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표13> 외모 지상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 |
|---|
|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대해 성찰하고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
|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
| 외모 지상주의를 유포하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
| 사회, 문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모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운다. |

출처 : 한국여성민우회

39) 몸짱 아줌마 열풍은 몸짱 아줌마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헬스클럽 사장으로, 각종 방송 출연 대상으로 만들었다. 몸짱 아줌마의 소위 아줌마스럽지 않은 외모도 그녀의 성공에 한 몫 했음은 물론이다.

4. 사랑 속에서 길을 잃는 여성

1) 길들여지고 종속되는 연애

여성과 남성의 연애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산업화 이후로 여성과 남성의 연애가 결혼과 이성애 핵가족, 그리고 재생산과 연결되어 근대의 사적영역을 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연애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에서의 감정노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국가나 사회·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재생산 영역의 핵심 토대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연애가 갖는 이러한 특성상 사회적 현상으로서 국가의 감시와 문화의 카테고리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학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연애를 통해 그 안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은폐되면서 낭만적인 것으로 정당화되었다고 본다. 사랑과 연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위치가 다르므로 그 경험과 의미가 달라진다.

연애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는 너무 연애 그 자체에 종속되는 것 같아. 되게 자신 있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만 생기면 내가 아닌 것 같아.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기다리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마냥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다 혼자 빠치고. 남자친구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일희일비 하니깐 이걸 사람 사는 게 아닌 거거든. 내가 연애를 하는 건지 연애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건지 모르겠어. 얼굴 부으면 미워 보일까봐 하루 종일 우울하고, 살찌도 그렇고 왜 이러는지 몰라. 나는 늘 이런데 정작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나만 혼자 아등바등하는 것 같으니까 속상하지…….(최영백, 23)

나는 예전에 남편이랑 연애할 때, 연애 자체가 내가 너무 얽매인다는 생각 하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나는 그런 느낌 들더라, 내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 같다는 생각?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스킨십에 되게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 터놓고 말해서 나 이 사람이랑 잤으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난 죽는 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안 헤어지려고 뭐든 맞춰주고 참아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같애. 그런데 정말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이제 그걸 느끼지. (유혜미, 29)

데이트할 때 우린 한 7:3 구조 정도로 내는 거 같애. 많은 쪽이 물론 남자친구고. 남자친구가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사회인이니까 그래서 경제력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는데 나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나봐. 나는 어리고 아직 학생이고 하니까 나이 많은 남자친구가 내는 게 어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가?..(최영백, 23)

나 연애 한창할 때 난 거의 비슷하게 냈던 걸로 기억해. 일단 남자친구가 나랑 동갑이었고 둘 다 거지였거든(웃음) 되게 정 없어 보이게 반반씩 낸 적도 있었던 거 같고, 보통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출 패턴이 거의 같았거든.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해 아무 생각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 남자가 너 안 좋아해서 돈 안 쓰는 거라면서(웃음) 왜 그런 말 있잖아.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달러 빛을 내서라도 쓴다고(웃음).....(이성희, 29)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낭만의 로맨스는 가부장적 성역할과 성각본에 의해 쓰인 것이다. 권력이나 자본이 있는 남자와 그것이 없는 여성 간의 성적 결합이 바로 그것이다. 남성의 매력은 집, 차, 돈, 집안 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등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여성의 매력은 젊음과 미모 등 외적인 면에 치중되게 된다. 이것은 남성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생계 부양

자의 역할, 여성은 비사회적인 동물로서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가사 노동자의 역할의 이미지를 고착시키게 된다. 페미니스트들이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이 결코 사랑이 아닌 신화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편적으로 남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생활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획득하고 구축하지만, 여성은 이미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한 남성을 만남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만들어 간다. 남성은 자신의 성공을 통해 여성을 획득하고 여성은 지고지순함과 낭만으로 포장된 사랑으로서 자신을 보호해 줄 남성을 찾아 그의 지위를 공유한다. 여기서 가부장적 성역할과 성 각본이 뚜렷해짐은 물론이다.

남성의 성공은 개인적인 욕구에 의함이 분명하지만 낭만적인 사랑 앞에서 남성의 성공은 여성을 위한 혹은 가족을 위한 것으로 의미가 주어지고, 여성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남성을 보좌하고 보필하며 조용히 사랑으로 감싸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미덕이자 아내로서의 덕목이 된다.

남성이 지위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은 무엇을 가져야 할까? 여기서 데이트 비용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해보자. 보통 데이트 비용의 사용에서 남녀의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데이트 비용에 더 많은 지출을 한다.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성역할은 데이트 비용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데이트 비용을 지출하는 남성에게 여성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답한다. 최근 몸짱 열풍이 불면서 남성 역시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잣대를 상대적으로 덜 받

는 편이다. 남성은 굳이 외모가 아니어도 경제력이나 그 외 사회적 지위 구축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외모를 가꾸지 않은 경우 자기관리 부족이나 별 볼일 없는 여성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2) '성'에 대한 이중 잣대

최근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연애의 '관계'와 '경험'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연애 = 결혼'이라는 공식이 깨지게 됨으로써 '연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연애와 그로 이어지는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근대 이전에도, 단 한 번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기대했던 우리 부모 세대와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예전과는 상이한 만남의 방식은 또 다른 의식의 변화도 함께 가져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담론들은 여성의 성과 욕망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연애와 만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고, 연구들 또한 비혼(非婚)의 여성들이 연애 관계 내에서 맺는 성관계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다(장수정, 1998).

사회가 급변하면서 혼전순결 이데올로기는 비가시적인 부분에서 줄어들어 추세지만 여전히 가시적으로는 여성은 결혼 전 당연히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남성들이 자신의 성경험에 대해 과장되게 떠벌리는 것과 달리 여성들의 성경험은 있어도 없는 척, 많아도 적은 척 하는 것이 미덕이다.

대학 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바람났었어. 물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래서

다시 만났다가 결국 또 비슷한 일로 헤어졌지. 사람들에게 얘기 하면 다들 어떠어떠 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같더라. 나만 해도 남자 누가 바람 폈네 어쩌니 하면 그냥 에이 나쁜 놈 이러기는 하는데 워낙 예들 많이 그래서 그런지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런가보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런거?..(이성희, 29)

원래 여자들은 말 잘 안하나 옛날에 누굴 몇 번을 만나고 그랬던 거.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소개팅 그런 거 하면 꼭 물어봐요 남자친구 헤어진 지 얼마나 됐냐, 몇 명 사귀어 봤냐 등등. 웃으면서 물어보지만 그거 나중에 칼 돼서 돌아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예전에 신입생 때 만났던 남자한테는 철없을 때라 멋모르고 있는 그대로 얘기 했었는데 나중에 사이 좀 안 좋거나 싸울 때면 꼭 그 얘기 꺼내서 말하는 거 보고 내가 학을 떼었지. 그래서 그 후부터는 줄여서 말하고 있어도 없는 척 하고 말하지. 일종의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한수연, 28)

성에 개방되고 그런 거 아직 여자들한테는 해당 사항 아닌 거 같애. 물론 뭐 옛날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야 그렇지만. 결혼해보면 더 실감할 걸. 남편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그 룸살롱 이런데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사회생활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버럭 화를 내.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가겠다 호스트바 갈거다! 하면서(웃음) 막 소리쳤어. 그랬더니 나보고 미친 여자라 그러면서 여자랑 남자랑 같냐 더라. 여자랑 남자랑 같냐는 소리 진짜 많이 듣고 자랐는데 새삼 울컥하더라. 아 이게 뭔가 싶고...(유혜미, 29)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성에 대해 개방된 분위기로 변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성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는 여성들에게 오히려 이중적 고민과 고통을 안겨준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가 변모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던 남성들이 더 편리하게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그것에 부응한 여성들은 후에 정숙하지 못한, 사생활이 문란

한 여성으로 각인되어 다른 연애도, 후에 결혼 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우울증세가 실제 자살과 연결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자살과 관련한 20대 여성 우울증세의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시작되었다. OECD 가입국 중 유독 한국만이 20대 여성 자살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나 사회적 구조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었다.

20대 여성의 우울증세는 '심신이 미약하고 유약한 어린 나이라서', '의존적이고 감상적인 여성이라서'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으로 그저 개인이 스스로 풀어내야 하는 가벼운 혼란 정도로 정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여성 연예인들의 우울증세로 인한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단순히 개인적인 범주에서 머물렀던 여성의 우울증세에 관해 사회적 담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꽤 많은 숫자의 젊은 여성 연예인들의 그간 숨겨왔던 우울증세와 그로 인한 자살충동 등이 기사화 되면서 여기에 힘입어 단순히 '여성 연예인'의 고충이 아닌 '젊은(20대) 여성'의 우울증세와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작게나마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자살관련 우울증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 시점에, 20대 여성의 우울증세와 자살률의 감소를 위한 좀 더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자살관련 여성우울증세의 실질적인 젠더 불평등적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가부장적인 가족 형태, 빈곤의 여성화, 성적

자기결정권의 박탈, 외모 지상주의 등 형태만 달리 했을 뿐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각종 가부장적 사회 요소들은 이 시대의 20대 여성들을 우울감에 빠지게 만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여성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저마다 다른 우울증세를 앓고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각각의 우울증세는 드러나는 형태만 달리 했을 뿐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강요되는 성역할과 짜여진 생각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젠더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에서 발로한 것이다. 일상화된 젠더 불평등은 여성들이 가는 길목 길목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 어머니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가족이라는 굴레, 자기관리라는 미명 하에 여성에게 강요되는 끝없는 외모 전쟁, 가부장적 시각에서 일탈자로 명명되어지는 비혼의 삶, 이중적 잣대에 두 번 상처 받는 성폭력 피해 등 사소한 일상 하나 하나부터 그 일상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가부장적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은 언제나 소외되고 주변화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20대 여성들의 우울증세는 개인적 경험이 아닌 가부장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는 전체 집단의 일반적 경험이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자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한국 여성들은 생애주기별로 여성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동일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있다.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부장적 환경은 20대 여성들의 우울증세를 끊임없이 증가시킨다. 이러한 사회적 형태는 우울증세로 인한 자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대 여성의 우울증세를 예방하고 그로인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호르몬 치료나 심신의 안정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Hartman(1976) 역시 개개인의 태도를 바꾸거나 의식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가부장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적 기반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자살관련 우울증세를 사회적인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은 각각 그 형태만 달리 했을 뿐 결국 공적 가부장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에서 상당히 불편한 언어가 될 지도 모르겠다. 또한 남성들은 물론 이거니와 연구자와 같은 여성들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우울증세를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치부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들이 과거 페미니스트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투쟁을 딛고 얻어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음이 보편적인 가치인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준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고,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면 새로운 변화와 실질적 진실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해야하지 않을까. 가부장적 사회라는 나무의 뿌리가 깊은 만큼 그 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키워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증하는 20대 여성의 자살률과 우울증세를 예방하기 위해 실행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의 구축이다. 자살은 분명 치료의 대상이고 예방이 가능하다. 과거 자살률이 높았던 선진

국들도 과감한 예방 대책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살률을 낮추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찰청과 119 구급대, 교육청, 보건소, 의료기관, 자살예방협회, 그리고 관련 NGO단체까지 긴밀하게 연결하여 자살예방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울증세로 인한 자살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우울증세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종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인들에게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정신질환의 예방과 더불어 자살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지난 2004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자살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010년까지 자살사망률을 2003년 대비 20% 감소시키고, 자살 시도율 및 자살 충동률을 2001년 대비 2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환경적 접근과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대상자적 접근을 포괄하는 추진체계 구축, 생애주기와 사업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등을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대책협의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략적인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는 국가의 자살예방대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현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미디어의 노력이다.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자살관련 보도가 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제 75회 기자포럼 ‘자살보도 개선방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국내 신문·방송 자살기사 모니터링(2006년 1월~2008년 8월) 결과 신문은 72%, 방송은 80.6%가

부적절하게 자살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여배우의 자살을 미디어가 앞 다투어 무분별하게 보도하면서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영화 배우 이은주씨의 자살 후 자살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명백한 베르테르 효과인 셈이다.

최근 미디어의 자살사고 보도의 문제는 자살방법을 지나치게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⁴⁰⁾과, 자살을 낭만적으로 묘사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도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살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분별없는 보도는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도에 자극을 받아 자살을 실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도지침을 마련하여 자살 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살 충동을 이겨내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은 사례를 소개하며 자살의 원인과 배경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 등 자살에 관한 선정적인 보도가 아닌 다각도에서의 자살관련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자살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자살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사회에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은 단기 과제가 아닌 중장기 과제지만 한번 형성이 되면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과 연령대별로 각각에 알맞은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생명사랑 나누미 운동은 청소년들에

40) 약국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팔지 않아 수면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약국을 전전하여 수면제를 보유할 수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자살이 이루어지지 않자 저런 방법으로 시도를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등의 자살 보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의미 있는 실질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이 세분화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되면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대 여성의 우울증세와 자살에 관련한 더 많은 연구의 시행을 제안한다. 20대 여성의 자살과 우울증세와 관련한 초기 연구를 시행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자살 예방의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과 우울증세와 관련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국가적인 자살 예방 전략 역시 이러한 연구가 있을 때 세밀한 분석과 좀 더 깊이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0대 여성의 우울증세와 자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 시점에 시기적절하게 진행된 본 연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20대 여성의 우울증세와 자살률의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초석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강이수·신경아(2001), 「여성과 일」,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곽호완(2005), 「일상심리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 권미혁(1999),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 한국여성민우회.
- 김동일(1991), 「성의 사회학」, 문음사
- 김수진 외(1999),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 김명혜 외(1998), 「성, 미디어, 문화」, 나남출판.
- 김태현·이문숙(2007), 「여성복지론」, 교문사.
- 박성희(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원미사.
- 박이정(2003), 「젠더를 말한다」, 경상대 인문학 연구소.
- 변화순(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송무(2003), 「젠더를 말한다」, 박이정.
- 여성한국사회연구회(2001),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 유지나(1993), 「섹슈얼리티와 대중문화」, 도서출판 동인.
- 이정옥(1994), 「여성학 연구 방법에 있어 질적 연구 방법의 의의와 한
계」, 사회과학연구집.
- 장미경(1999),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문화과학사.
- 장인협 외(2000),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휘숙(2002), 「여성심리학」, 박영사.
- 정은·은선경(2006), 「여성복지론」, 창지사.

- 조순경 외(2000),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용범·박상철(1998), 「자살, 예방할 수 있다」, 학지사.
-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 여성학 강의(개정판)」, 동녘.
- 한국성폭력상담소(2006).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석·박사 학위 논문]

- 김영이(2002), ‘여성의 우울에 대한 여성주의 목회상담학적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순(2007), ‘스트레스, 절망,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노인과 청소년의 차이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현미(2006), ‘기혼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라(2006), ‘상호의존성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통한 주체성 연구 -20~30대 대졸이상 비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은경(2003), ‘자살생각’ 경험자의 심리 사회적 특성 연구-사이버 자살 위기 상담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정혜(2009), ‘마음챙김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혜(2006), ‘여성 리더의 가족 경험-가족 내 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행(2007), ‘남편의 외도로 고통중에 있는 아내를 위한 해결 중심 교

- 회 돌봄 프로그램’, 광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연(2008), ‘크리스찬 중년여성의 우울증과 치유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미자(2007), ‘미술치료가 주부 우울감과 직장여성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혜(2004), ‘도시 빈곤 여성의 우울 감소를 위한 계슈탈트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수정(1998), ‘20대 대졸 여성의 피임 경험을 통해본 성적 주체화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숙(2007), ‘연애관계를 통해 재구조화되는 ‘행위성’-20~30대 고학력 비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지영(2008), ‘무용/동작 치료가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학습된 무기력과 내외 통제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율(2004), ‘여성 우울증의 이해와 치유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학회지, 정기 간행물]

- 가천의과대학 건강증진사업 지원단(2007), 「국내 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김영택(2009),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젠더리뷰 2009 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택(2009), 「동반자살과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젠더적 접근」. 젠더리뷰 2009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란(1991), 「GENDER ROLES IN KOREA」,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4
- 남민(1997), 「청소년 자살」, 대한의사협회지.
- 노동부(2008), 「가내근로자 실태조사 및 법적 보호방안 검토」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2008), 「젠더연구」
- 류정순(2004), 「빈곤의 여성화 실태 원인 및 정책 대안」, 창원경남 여성단체 연합 토론회.
- 박연숙(2000), 「한부모 토론문」, 여성복지학교.
- 석재은(2003),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vol.56.
- 송다영(2003),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 신명숙(2001), 「여성성의 새로운 이해와 여성을 위한 목회상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1.
- 이원숙(1998), 「아내학대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32.
- 한국여성민우회(2002), 「여성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 한부모가족 양육비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1),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국내 여성 동향 정보 29회차」
- 한승희(2001), 「간접차별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12호.

함인희(1992), 「가부장적 행위양식의 변화에 대한 소고」, 여성연구논총,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2. 외국 문헌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lock, J.H. (1973), "Conception of sex role: Some cross 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28, 515-526

Bordo, Susan. (1990), "Feminism, Postmodernism and Gender-Scepticism." Linda J. Nicholson, ed. *Feminism/Postmodernism*. London: Routledge, 133-156.

Brent, D. A., Kolko, D. J. (1990),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t risk for suicide. In Suicide over the life cycle : Risk factors, assessment treatment of suicidal patients*. Brumenthal, S. J., & Kupfer. D. J.(Ed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Burgess and Locke(1953),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ew York: American book.
- Carlson, G. A., Cantwell, D. P. (1982), "Suicide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 Firestone, S. (1970), *The dialectic of sex: The case for Feminist Revolution*, William Morrow: New York.
- Gibbs, Jack P. and Walter T. Martin (1964), *Status Integration and Suicide*. Eugene, Oregon: University of Oregon Press.
- Hartman, H. (1976),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in *women and the Workplace: the Implications of Occupational Segregation*, Blaxall, M. and B. Reagan (ed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Henry, Andrew F. and James F. Short(1954), *Suicide and Homicide*, Glence: The Free press.
- Hurlock, E. B. (1983), *Personality Development*.: McGraw-Hill publishing Ltd, New Delhi, 351-353
- Jobes, David A., Shneidman, Edwin S. (2007), *Managing Suicidal Risk*, Guilford Pubn.
- Judith, M., Keller M. B., Shapiro R. W. (1982), "Double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438-442.
- Mackie, M. (1973), "Arriving at 'truth' by definition: the case of Stereotype Inaccuracy", *Social Problems*, 20, 431~447.
- Milett, K. (1970), *Sexual Politics*, Doubleday: New york

stereo type inaccuracy. social problem, 20.

Murdock, G.(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 The Free press.

Parsons, T. (1942), "Age and sex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Sociological Theory, Pure and Applied*. New York: The free press

Raymond, J. (1975), "The illusion of androgyny", *Quest*, vol.11, no.1, p.61.

Rehm, L. P. (1977), A self-control model of depression. *Behavior Therapy*. 8, 787-804.

Rich, A. (1980),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Sign*, vol. 5, no. 4, pp.631-60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s Books.

Scanzoni, J. and G. L. Fox (1980), "Sex Roles, Family and society : The seventies and Beyond", *Journal of Mariage and the Family*, 42(4), 743-756

Qualls, W. J (1982), "Change sex roles, It's impact upon family decision making",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9, ed. Mitchell, A., Ann Arbor, MI: Association of Consumer Research, 267-270.

Qualls, W. J (1987), "Household Decision Behavior: The Impact of Husbands and wives' Sex Role Orient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2), 264-279.

White, J. L.(1989), *The trouble adolescent*, New York: Pergamon Press.

3. 번역서

거다 러너(1986), 「가부장제의 창조」, 강세영(역), 당대.

거다 러너(1998),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 김인성(역), 평민사.

나우왈 엘 사다위(1995), 「스핑크스의 여성들」, 정혜청(역), 한마당.

로즈마리통(1995/2000), 「페미니즘 사상-종합적 접근」, 이소영(역), 한
신문회사.

메기험(1995), 「페미니즘 이론 사전」, 심정순·염경숙(역), 삼신각.

미리암 그린스팬(2001),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 고석주(역), 또 하나
의 문화,

미셸 바렛(2005),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의 만남 - 다시 보는 여성
학」, 하수정·이향미(역), 간디서원.

벨 후스(2002), 「행복한 페미니즘」. 박정애(역), 백년글사랑.

벨 후스(2004), 「사랑의 모든 것」, 윤길순(역), 동녘.

앤서니 기든스(1996),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
황정미(역), 새물결.

앤서니 기든스(2003), 「현대사회학」, 김용학(역), 을유문화사.

엘리자베트 바덴테르(1980), 「만들어진 모성」, 심성은(역), 동녘.

우에노 치즈코(199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이승희(역), 녹두.

제인프리드먼(2002), 「페미니즘」, 이박해경(역), 이후.

주디스 로버(2005), 「젠더 불평등」, 최은정·임소희·임혜련·정광숙
(역), 일신사.

4. 통계 자료, 언론보도 및 참고 사이트

OECD(2007), Health Data.

경찰청(2001), 가정폭력 통계자료.

경찰청(2009), 가족폭력 발생 건수 추이.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2006),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통계청(2009), 2004-2008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09),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통계.

통계청(2009), 여성취업 장애요인.

기자협회, 「제대로 된 자살보도가 생명 구한다」 제75회 기자포럼 ‘자살 보도 개선방안’, 2008. 11. 19.

매일경제, 「살에 대한 두려움이 낳는 질병들」, 2009. 6. 8.

연합뉴스, 「자살예방심포지엄 ‘우울증과 자살」, 2008. 5. 27.

주간조선, 「허울뿐인 상위, 수치스런 하위. 각종 지표로 본 KOREA」, 주간조선 2009년 2061호.

경찰청 www.police.go.kr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여성부 www.moge.go.kr

통계청 www.kostat.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

한국자살예방협회 www.suicideprevention.or.kr

ABSTRACT

A Study on Cause of Woman Depression Related to Suicide (focusing on Women in 20's)

Han, Jee hee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gender inequality as a cause behind depression symptoms in women in their 20s with a focus on suicide rates.

The suicide rate among Korean women in their 20s is on the rise recently. Korea's high rate of women in their 20s committing suicide is an unusual phenomenon worldwide. The average suicide rate for women in OECD member countries is 5.4 per 100,000 population. In Korea, the figure is more than double the average at 11.1,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s. Comparing suicide rat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their 20s, Korea, Norway and Hungary are the only countries where the ratio of female to male suicide cases is similar or higher. The number of women in their 20s committing suicide is half of male suicides in a majority of OECD member countries.

Although female depression and suicides are growing exponentially every year, depression symptoms among women in their 20s related to suicidal behavior are believed to be caused by the female gender's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dependent nature, and emotional tendencies. The depression symptoms are considered to be an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phenomenon and a disorder that one has to cure by oneself. Female depression symptoms and related suicide accidents were unable to get the spotlight socially, and thus, lack much-needed research.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research with a feminist approach to suicide-related depression symptoms among women, especially those in their 20s, is nonexistent.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highly-educated women in their 20s who have thought about or attempted suicide due to serious depression symptoms. Based on the interviews, the author looks into gender inequality as a cause behind suicidal depression symptoms among women in their 20s.

In Part I, the author explains the purpose of study on gender inequality as a cause behind depression symptoms in women in their 20s, why it is necessary, and how the research is carried out.

Part II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symptoms and suicide cases and suicidal depression symptoms among women in their 20s. The author outlines a general conceptual understanding of depression symptoms and suicide, and analyzes

depression and suicide rates in Korea with a focus on gender.

Part III presents several theoretical arguments (patriarchy, gender role, normal family ideology, feminization of poverty) that back gender equality as a cause of suicidal depression symptom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women's position in a patriarchal society, rather than as individuals.

Part IV is an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with ten women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given in Part II and Part III. Today's Korean women in their 20s take part in the labor market, grow up in a patriarchal family system, live in a body-worshipping culture, and find themselves lost in love. The author analyzes depression symptoms of these women in depth.

In Part V,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a number of social factors, such as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patriarchal parents, feminization of poverty, depriva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lookism, are throwing women in their 20s into depression. In other words, their depression symptoms mirror social inequalities and represent a resistance to gender discrimination.

Depression in women exposed to a depressive social environment is without doubt an individual problem. However, an analysis of individual factors indicate the root of the problem is in patriarchy, which dominates the individuals'daily life as well as the society overall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The gender role of women is defined by traditional image of

women and norms set by men. This is why today's women suffer depression symptom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uicidal depression symptoms among women in their 20s fundamentally, medical treatment and mental stabilization are not enough. The society needs to take continuous interest and come up with solutions.

The author recommends several realizable and practical measures that will prevent suicide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their 20s. The recommendations are: establishing a suicide prevention system; taking a media effort; forming a social consensus; and conducting research. In order to prevent female depression and suicide more effectively, it is recommended that in-depth research is carried out on women in different age groups, education levels, professions, and so on, in addition to the study on highly-educated women in their 20s.